

# 逸波學報

第一頁	第二頁	第三頁	第四頁	第五頁	第六頁	第七頁	第八頁	第九頁	第十頁
...	...	...	...	...	...	...	...	...	...

第10號  
卒業特輯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刊

目次

(逸波學報第)。號卒業特輯)

卷頭言

校長 崔珉宇 一五

卒業을 맞이하여 (學友諸兄들께)

會長 金容煥 一六

光輝있는 앞날을 爲하여 (後輩에의忠言) 民議院速記士 李東一 一八

學窓를 떠나면서 副會長 崔衡重 二〇

卒業指針

朴相國 二三

無形의 人生觀

智育部長 黃善明 二五

校門을 나서며

崔錫模 二七

速記의 五益五戒

教師 金嶺基 二八

主人과 소

金明壽 三〇

笑話, 거시기

C 生 二九

辯論해서 못이긴다 左右銘

二一

速記와 나

崔龍夏 二二

여러분은 忍耐「테스트」에 合格者이다 民議院速記士

孫引基 二五

恩師에 對한 感謝

朴保和 二六

設問 ————— 二八

隨筆 "방랑하던 조아의 죽음" ————— 陸鍾晟 — 三一

隨筆 "親切과感謝" ————— 申根植 — 三二

隨筆 "春覺" ————— 徐允錫 — 三二

어떻게 사람을 재미있게 할까 ————— 左右銘 — 三五

隨想 "英姬는 가다" ————— 朴 S K — 三六

蕩子の辨 ————— 金泰宣 — 三七

原稿病에 걸린 智育部 ————— 智育部長 黃善明 — 四二

原子知識 "原子爆彈에 對하여" ————— 徐廷仁 — 四三

말을 내려거든 變동을 치버리지말라 ————— (兪집부) — 四九

會員 "푸르민" ————— ( ) — 五一

詩 "눈" ————— 李 薰 — 五三

詩 "달팽이" ————— 李 薰 — 五四

詩 "告白" ————— (紅三点合作) — 五四

日記抄 ————— P S K — 五五

笑話 "아내 속이는 秘結" ————— — 五七

短篇奇談 後生을 輕視치 말라 陸鍾敷 五八

生의 意慾 P 生 六一

詩 黃昏 申丙均 六三

詩 내년의 종소리 金大煌 六四

家庭安樂七則 六四

꿈트 青春로맨스 S K 生 六五

이렇게하면 어디서나 歡迎받는다 左右銘 六八

슬어진 處女의 꿈 李天永 七〇

플치의 일년 K T S 七二

詩 鐘소리 朴保和 七三

卒業生名單 七四

敎職員一覽 七六

同窓會名譽會員 七七

同窓會正會員名錄 七九

本校沿革 八一

同窓會會則 八三

編輯後記 八五

卷頭言

校長 崔 珉 守

諸位가 本校에 入校한 지도 於  
焉 一年이 지났읍니다 새삼스러  
히 歲月의 흐름이 빠름이 느껴  
집니다

이 한해동안 諸位는 忍耐와  
努力을 一뜻도나로 不屈 不撓의  
精神을 發揮하여 勉學에 惠念한  
보람있어 오늘의 盛學의 功을  
이룰 수 있게 된것을 慶賀하는  
바입니다

이 學報의 發刊도 諸位가 本  
校生活를 마감하는 貴重한 記錄  
이며 잇을 수 없는 記念이 될것  
입니다

이 學報는 지난 一年間에 在  
어서 團體生活의 좋은 伴侶가  
되었음은 勿論 學報를 通하여  
諸位의 文筆活動을 兼하여 同門  
으로서의 團結과 協同을 實踐할  
수 있었으며 諸位의 友誼와 나  
아가서는 同門同窓間에 廣範圖하  
게 交涉를 갖게하였음은 學報의  
業績을 높이 評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學報가 더욱 發展  
할 수 있는 素地를 닦아 놓으  
고 後輩에게 價値있게 繼承되어  
校友誌로서 더욱 興날것을 믿는  
바입니다

이제 諸位는 有能한 速記技術  
의 所有者로서 校門을 나서서는  
우리나라 記錄文化界에 貢獻 寄  
與할 수 있는 役軍이 됩니  
論 文化의 利器로서의 速記學術  
의 發展에 諸位의 눈부신 活躍  
이 期待되는 바입니다

오늘 諸位를 惜別함에 在어  
앞날의 榮譽과 幸福과 健康이  
諸位의 生活에 향상 되들어 在  
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 卒業은

(學友諸兄들께)

會長

金

容

煥

歲月이 若流波라 했지만 우리  
들이 지내온 一年間의 歲月이란  
慾望스러운 程度로 너무나 빨랐  
습니다. 이제 卒業을 맞이하  
고저 諸兄들의 손길을 맞잡고  
限定없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  
은 心情입니다.

卒業과 함께 校門을 나간다는  
것이 自身도 모르게 쓸쓸하고  
섬섬한 氣分을 이겨낼 수 없음  
은 우리들이 只今 지나고 있는  
共通된 心情일 것입니다. 客年 四  
월에 母校에 入學한 우리들은  
滿一年間 炎暑와 酷寒을 두릅쓰  
고 모든 難關을 克服하여 堯積  
七食하면서 熾과 誠으로 始終一  
貫함으로써 窮乏한 國家豫算의  
惠澤을 받는 國費生으로써의 心  
的 義務를 克盡하기에 全心專力  
했다고 自負할 수 있으며 和氣  
霽々한 秀麗氣에서 敦篤하게 맺

어진 友情一年을 回顧할 때 참으  
로 意味深長함을 刻骨難忘입니다.  
지나간 一年間 한 걸음이 허투의  
지친 몸을 이끄러가며 자리를 갈  
이하여 오직 速記習得에 全心力  
을 傾注하면서 間斷없는 努力을  
繼續한 結晶으로써 微力하나마  
速記術을 習得한者로 自原하고  
校門을 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周圍事情이 速記術을 實社會에  
많이 應用할 수 없는 實情임으  
로 우리는 자칫하면 지난날의  
勞苦를 헛되히 할 憂慮가 多少  
히 있음을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完全無缺한 能  
力者로서 實力을 完備한다면 앞  
으로 社會各方面 或은 單方面에  
서도 우리의 活路가 열릴것은  
疑心할바 없는 事實일 것입니다.  
學友諸兄들! 우리는 우리의  
一年間의 배움을 어찌 헛되게

~ 7 ~

하겠읍니까 二。代의 一年間이란  
 一生을 通해서 가장 값있는 一  
 年임을 생각할때 우리는 더욱더  
 憤發해서 速記術을 우리의 宝物  
 로 기리기리 간직해야 할것입니  
 다 우리는 卒業을 契機로 다시  
 뭉쳐서 우리들의 活路를 우리들  
 自身이 開拓해야 하겠읍니다 諸  
 兄들 中에는 卒業後 學校로 職  
 場으로 或은 軍門으로 地方으로  
 居處를 달리하여 在學時와 같이  
 朝夕으로 對面하기는 至難할줄로  
 믿읍니다 於是 不斷하게 從橫으  
 로 緊密히 連絡함으로써 旧情을  
 더욱 敦厚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是 相互協助하여 主심을 믿어다  
 지않읍니다 願컨대 在學 동안  
 激務에 시달리시면서도 一年을  
 하루와 같이 熱誠과 發護之心으  
 로써 教壇에서 或은 後面에서  
 教導해 주신 여러 先生任들의 慈  
 德은 深山幽谷에도 比할바 없으  
 며 尺尺에 共産狹輩와 對敵하여  
 戰時生活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의

窮乏한 財政으로 工夫했다는 點  
 을 생각할때 重且大한 義務感과  
 報答의 一念을 禁치 못하는 마음  
 또한 우리들이 다같이 지닌 心  
 情이겠읍니다 學友諸兄들이여!  
 우리의 卒業은 決코 우리들이  
 제각기 갈려 헤어져 가는것은  
 안일것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더욱더 緊密히 結合함으로 給與할것  
 을 再三呼請합니다 卒業을 맞이  
 하여 同志諸兄과 함께 母校의  
 無窮한 發展과 先生任 諸位의  
 前途를 祝福합니다  
 是 情으로 여러분의 情임없는 友  
 好之情과 鞭撻을 바라면서 變함  
 없이 健聞하심을 비러마지 않습  
 니다

四二九〇年三月十日

金容煥

金言

내일에 地上의 破滅이 올지  
 라도 나는 오늘 현그루의  
 사파나무를 심으리라  
 — 마루틴 북터 —

光輝있는 앞날을 爲하여 “ 忠言 ” 李 康 一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와서 또  
 어디를 向해서 가느냐고 하는  
 물음에 對해서 무엇이냐고 對答  
 을 할 것인가 아마도 여러분은  
 確實한 對答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단한가지 홀몸으로 왔다  
 가 홀몸으로 돌아간다는 事實  
 만은 알수있을 것이다 우리는 果  
 然 赤身으로 왔다가 赤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흔히 人間의 一生涯를 列車에  
 比喩하고 우리人間을 乘客에 比  
 하는예가 많다 이와같이 우리는  
 母体内에 있는 胎兒가 母胎에서  
 出生하는 그瞬間부터서 人生이  
 라는 列車에 乘坐한 乘客이 되어  
 서 우리가 七尺의 高을 이불삼  
 아 땅에 묻히는 그瞬間까지 行先  
 地를 모르는 眞實의 流浪生活  
 을 繼續하는 것이다 換言하면 人  
 生旅程 그自体가 未知數인 것이다

普通 世上사람들은 말하기를 人  
 生六十이라고한다 六十이라는것이  
 數的으로서는 얼마 안되나 이것을  
 秋로 따지면 實로 어마어마한  
 天文學的인 數字가되나 이 기나  
 긴 歲月을 旅行하는 동안에는  
 數 많은 列車을 마피타야 할것이  
 요 여러가지 喜劇이 演出될것  
 이다 옛날 奏始皇같은 이는 人生  
 이 짧다고 慨嘆하여 深深山의  
 不老草를 求하려 했는가 하면  
 反面에 世上살아가 괴롭고 苦한  
 다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諸  
 은이도 許多히 많다 여러분은  
 바로 昨年 이맘때에 一生의  
 一部分인 速記列車에 몸을 싣고서  
 速記라는 終着歌를 向하여 風雨  
 寒雪 汗流같이 基本文字驛을 지  
 나고 變身驛 略字驛을 通過하는  
 동안 오로지 齋과 誠으로서 苦  
 준히 努力한 結果 오늘 비로서



終着驛에 다다르게 된것이다 그  
 러나 速記列車가 人生의 全部인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過去에  
 도 數 많은 列車을 타고왔고 過  
 去에 타고온것과 마찬가지로 現  
 在에도 또한 數 많은 列車을 타고  
 어디로인가 가지만 할것이다 許  
 多한 列車에 올랐다가 내렸다고  
 이리왔다 저리갔다하는 동안에  
 自身도 모르게 人生의 終焉을  
 삼하게 되는것이니 端的으로 말  
 해서 人間이라고하는 그 自体가  
 그달음 나그네이기도 한것이다  
 어떻게보면 人間이란 그저 이세  
 상에 태어나서 이列車 저列車을  
 타고 흘러가다가 물거품과도같이  
 꺼져버리는 一葉舟舟요 無意味  
 無價値한 動物에 지나지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個人이 列車의  
 乘客으로서 오르게되는 그 瞬間부  
 터서 그사람은 그사람으로서의  
 價値가 認定되는것이요 必要性이  
 생기는것이다 個人의 個性·素  
 質等 여러가시에 따라 各者 스스로  
 로가 自身の 運命의門을 叩크

해야만 하는것이냐 거기에는 전  
 녀야할 數 많은 江이 있고 남어야  
 할 險山峻嶺이 가로놓여 있는것  
 이다 政治界에서 政治를料理  
 하는사람 或은 政治家 或은 實  
 業家 或은 技術人等 速記士도 좋  
 고 지계관도 좋고 詩人도 좋고 農  
 夫도 좋다 다만 스스로의 運命과  
 對決하여 萬難을 克服하여 勝利  
 의 旂幟를 쓰는사람이면 누구  
 인지는 모르나 그사람에게 期待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期待에  
 어그러지지 않을것이다 自身の  
 肉體的인 制約을 말음에도 不拘  
 하고 運命과 싸워이긴 커먹어리  
 音無家가 있는가하면 며오른 詩  
 想에 攄주린 蒼자를 쫓아가며  
 떨리는 손으로 붓대를놀리는 詩  
 人이었다 이제 여러분은 期待하  
 고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報  
 答하려는가? 人生이 한번 칼을  
 뽑으면 피를보아야하는 木刀試合  
 이 아닌 眞儉勝負인것대는 쓸어트  
 리느냐 쓸어지느냐의 跋路에서  
 여러분은 苦배를타사는 弱者가



어요? 무슨말인지! 速記해 보  
 시려면 親旧도 버리고 더구나  
 女子親旧와는 絶對재미보지말것  
 다름 어떠한 아무것도 다 버리  
 고 讀書의 速記만으로 벗하도록  
 忍耐와 努力으로 그럴듯한 結果를  
 맺으시도록 入學當時의 速記라  
 는 것으로 好奇心 그득했던 우리  
 에게의 스승님의 말씀들이자라  
 지금 다시 生生히 되살아난다  
 이내들은 果然 그렇게 한 것이다  
 그 結果는 速記라는 것 외에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을 더 무라스해서  
 버섯들로 했다 너무나도 역여한  
 것 어째든 젊은애들이 온 한해  
 戀愛 조급을 맛도 못본채 지냈  
 으나 말하자면 이 کن해의  
 強制(?)는 아직 어린 머리에  
 進歩的인 思考方式을 가져왔고  
 눈을 가져다 주었다 修養기  
 이곳은 참으로 衆國이었다 當面  
 韓國의 새教育을 實踐함으로  
 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어른들은  
 果然 여기에 세셨다고 나는 느  
 켜다 우리의 學生들의 意

思는 그대로 尊重받았고 스승을  
 공경할 줄 알았고 사랑받을 수 있  
 었다 참으로 安樂하고 進歩的인  
 새教室이었다 나는 天津漫滿한  
 國民校어린이들과 원하로를 함께  
 生活하고는 커멧< 저물때 黃  
 昏을 배웅하며 여기를 다녀온  
 몸이었다해서 외람되나마 教育的  
 見地에서 이 意見을 느낀대로  
 본대로 우리 오빛한 單閭 새教  
 室의 霧圍氣속에 教育的 效果를  
 적어보았다 스승님들께서 速記教  
 室의 學生들은 너무 安心해 이  
 런 칭찬으로 우리는 지냈다 이  
 령듯 스승님의 그 貴重한 그 모  
 든것은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과 많은 原動力을 注入시켜 다 소  
 곳이工夫를 着實히 했다 아  
 이제 내 櫛理에는 한가다 파노  
 라마가 스쳐간다 光陵 僧加寺에  
 서의 말들 살들히 즐겼든 그날  
 野遊會 두쪽 그때 副校長先生任  
 은 다리를 저시면서 우리와 함께  
 險한 산길 綠陰속에 묻혀심을  
 즐겨하셨다 菩提學을 하는 사나인

열정이 시커먼 아리랑 밤보사나인  
 자 / 一等賞 / 野遊會 施費式에  
 公正했던 校監先生任에 興겨워하  
 시든 그 모습 모두 눈에 어린다. 그  
 라 동동 내 사랑아 先生任의 영령  
 춤기 막히게 웃어치든 場面 < | |  
 우리 同僚들의 따져서 재로 들어 나  
 시든 그것 지금 딱 눈앞에 스쳐간다  
 그뿐이라 / 教室에서의 休息時間에  
 우리들 너무나 大 웃은 것이 탈이 되서  
 따로 教室의 층에 位置한 國會事務處  
 特別警備隊의 잠정아저씨들로부터  
 騷擾罪혐의로 몰려 혼난 일도 있었지  
 / 또 이진 어찌 몇몇 막난이 群들  
 은 先生任의 夜間襲擊에 成功하여  
 한턱을 옮겨내고 푸드리다간 번듯이  
 모두들 누워주무시고(?) 새날을 맞았  
 다. 어떤 때는 晝中인 先生모을 襲  
 擊하곤 그만 敗者의 境遇에 서기도  
 했지 / 참으로 때칠수없는 怨愾들이  
 다. 이렇듯 즐거운 면도 왔건만 苦難  
 에 길은 더했다. 여러분 이제 몇우  
 인자 아세요? (五〇후에요) (五〇후) |  
 맥이 풀리고 怠慢이 엄습하는 速速連  
 續線 기로에서의 우리들. 그렇든

이 병아리들이 이제 제법 蒸병아리로  
 자랐다. 市公館에서의 全國大學模  
 國會에 模擬速記士로 가서는 實務席  
 에 앉아서도 先生任 열플만 쳐다보고  
 외들 < 멀든 그날도 있기는 하지만  
 아 | 이 教室의 生活에 有終의 美  
 를 거두지 못하고 헤어진 벗들이 생  
 覺키운다. 오늘에 이 榮光의 날을 같이  
 못함이 서글프다. 健聞를 믿어본다. 그  
 모두가 지금 막달려간 말말 자욱 <  
 소음처럼 너무나도 생생히 크루스엄되  
 여온다. 이 서클픈 心思를 짓잡기 어렵  
 노라. 焦燥함은 이제부터이니 어찌라  
 불들을 어줄 스승을 떠난다. 그러나 스  
 승은 팔삼하시기를 最後의 燄빛을  
 맺음도 이제로부터라고 하겠다. 이 마  
 지막 선불인 이것만을 銘心해서 끊임  
 없이 奮闘하기로한다. 이것으로서 산생  
 님의 우리를 내보내며 걱정하실 그  
 心境에 報答해 드리기로나 할까?  
 문당마치고 끝으로 良時間에나바  
 스승님의 健聞를 祈願해 보는 것이다  
 이제 여기 學窓에서의 모든 것은  
 끝났다. 벗들 健聞하시기를.....

卒業은 苦勞고 精力이 무르익  
 은 士氣旺盛한 出帆인것이다 賢  
 明한 船長은 暴風을 만나도 決코  
 膽慌하지 않으며 그렇다해서 悲觀  
 처도 않는다 子時을 豫期치 못하  
 는 이미 賢明은 子時 子時以下의  
 無價値한 存在物視될것이다 또  
 賢明한 船長은 그가 直接 破  
 曉와 對決하려고 許多한 精力과  
 貴重한 危機의 一瞬을 決코 必  
 되코 消耗하려하는 않는  
 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선 自然의 攝理이기로서  
 니 宇宙의 變遷甚分之一의 權  
 成分子에 不過한 人間이 그  
 를 어찌 抑在할수있으랴! 그렇다  
 고 지레질잡을 해서 必코 落心하  
 고 絶望하여 그 사나운 波濤와  
 싸고 研磨한 力을 懸番 試驗도  
 않고 배가 沈沒하고 포각이 나  
 도록 無觀心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것이다 그것은 自己만의 犧  
 牲이 아니요 同乘者全體의 家  
 族에게까지도 큰禍를 招來한 다함  
 을 意識하기 때문만은 아닐것이

卒業指針  
 相國

다 恒常必勝의 信念을 가지고 最後  
 의 一瞬 一刻까지 온갖 兼와 갖은  
 能力을 동원어몰아서 暖和하고  
 잔잔한 저바다에로의 轉換을 爲하  
 여 開拓하려고 꾸준히 努力하는 것  
 이 賢明한 船長의 思考方式이며  
 行動인것이다 그 航海에서 無事히  
 賢明한 船長이 되어 歸順하여야만  
 그를 指導하신 스승과 父母 同志  
 들에의 報答일것이다 어차피 우  
 리는 諸各의 船艙을 지나고  
 어쩔수없이 試合場인 暴風  
 의바다에로 出渡할 몸이다  
 여기서 우리는 새삼스러히  
 重責을 回顧하여야겠다 過  
 去事가 그리웁고 안다쳐워 돌아  
 다보고 또 되돌아다보고하여 妄想  
 에잠기어서 그리 슬며지지는 말  
 어야할것이다 우리는 남이주는 덕  
 만 汲석덥석 받아먹고 크는 童  
 者는 幼兒는 이미 아나외다 그  
 時節은 決斷코 다시 돌아오지 아  
 니할진댄 決斷코 現實의 當面課  
 業만을 信念하고 營役의 對象으로  
 林擇함으로서 씩씩하게 사나히다

움게 未來의 巨大하고 眞貴한 結  
 實을 獲得코저 努力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들은 諸般事에  
 軟弱하고 비록 かな한 몸이며 經  
 驗도 稀薄하지 않는 그대로 우리  
 의 손과 발은 松柏처럼 晴晴하고  
 파키처럼 夜세지 않던가? 勇敢히  
 버티고 굳굳하게 歩一步 믿음직  
 하게 前進하라! 제아무리 지루  
 하던 겨울도 寒飆發狂과 醜態를  
 부리고나면 봄은 누가 기다리기  
 나 현듯이 저절로 우리의 가슴에  
 인켜보지 않던가? 朔風의 있는然  
 後에야 파스한 봄이 있음을 알았  
 거든 하물며 어찌 그 겨울을  
 닳하라! 이곳지 못한 겨울이 아나였  
 던들 그같이 아름답은 봄을 그  
 다지도 想切히 기다리거나 할까  
 보나? 이미 주어진 우리들이 갈  
 파의 使命! 社會를 怨望하고 祖上  
 을 닳하고 나自身을 悲觀만 해서  
 어찌하겠다는 것이나? 生의 意志가  
 強硬者 決코 自我生活을 悲觀落  
 膽치 않는 법이니 이제 우리는 過  
 去만 먹으며 失수는 없는 嚴然한

靑壯年卒業生이 아니드나? 이같이  
 深刻하고 錯雜한 表情을 지은 卒業  
 은 내일찍이 찾아볼수 없었던 것  
 이다. 나를 기다릴 이 없는 저  
 마다 에로 누구따라 가야만 하는  
 것일까? 多情한 親舊 다 離別하고  
 나 홀로의 갈길을 누가 기다리고  
 반겨하여 줄 것인가? 그러나 지  
 나간 惇愼의 苦痛날의 부드러운  
 情은 永遠히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니 그것이 못내  
 겨워 숨막하도록 서늘피 지노라  
 꿈이다! 꿈을 무는 것이다. 다  
 만 이제 내게는 앞에 서는 風  
 波와 싸우고 살아가려는 아름다  
 운 學窓의 꿈만을 되씹고 사는  
 船長이 될 것이다. 그 꿈은 永遠  
 히 나에게 缺별을 흠신 부여주  
 리라. 卒業은 出帆이다. 順風에  
 돛을 드높이 달아라! 여기  
 영차, 여기 영차. 뱃노래도 멋  
 지게

一九五七. 三. 七 P. S. K

# 無形의 人生觀

黃善明

單純한 思索과 判斷으로서 人生觀을 가지고 自我의 批判을 할 때 어딘지 모르게 구슬은 感이 들고 生의 愛着心을 잃은 것 같으니 生의 心的變化라고 할까? 量境의 支配라고 할까? 다만 弱者의 웃음 소리요 嘆息일 것이다. 내가 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時間이란 軌道에서 生 내 氣力이 미치는 限度內에서 죽임이란 수레를 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 열마나 不幸한 者이기에 이같은 말이 나오며 自身의 嘆息이 나왔을까?

일찍이 動亂時 嚴親을 잃고 온갖 生의 苦難을 맛보며 現實과 싸운 때 自身모르게 落心된 생각만 드나 왜 나의 人生觀이 이렇게 變했을까?

父 母 膝下에서 生의 安息을 누린

때도 이같은 생각이 들었을까? 人生의 苦難을 이란 決코 永遠히 持續되는 것은 아니다. 人間이 生存競爭을 하며 喜怒哀樂이 있고 온갖 苦難이 닦이며 自身을 피롭힌다. 그러나 아무리 헛된 人間 夢을 人間이라도 그 者에게는 眞實한 삶이 있고 希望이 있는 것이다. 生과 죽음을 가장 많이 論할 때는 우리 二〇代 青年時節에 第一장이 있고 無限히 피롭히는 命題일 것이다.

아마도 自身이 苦를 들이고 主재념게 人生觀이란 것을 갖이코 나 自身을 한번 도리켜 보겠다. 고 하는 그 慾望이 것도 또한 좀더 安逸하고 幸福하고 福된 生活을 하려고 이같이 苦難을 회는 것은 아닐까? 勿論 여기에 는 眞實을 爲해서 싸워보겠다는 慾望, 념쳐 흐르며 좀 남보다 낫게 나의 人生觀을 開拓하여 살아보자는 慾望일 것이다.

외나 不行한 人間으로 태어나

갈팡질팡하는 그 풀이란 는 뜨고  
 못볼 奇現象인 것이다  
 적은 반딧불 하나가 또는 한  
 무리가 暗黒을 쫓치고 반짝이며  
 그 自由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빛이 사라질때 暗黒에 세계  
 는 그 반딧불 때문에 상처 입  
 은 혼적 조차 없이 주위는 如前  
 히 暗黒에 世界가 된다 이같이  
 人間도 빛이 있고 光明된 身辺  
 에 變化가 있었더라면 人間은  
 모두 善이란 틀에서 살 것이나  
 일찍이 오스카와일드가 獄中  
 記에서 말한 바와 같이 人間은  
 아름다운 精神을 갖고 있고 있는  
 反面에 醜한 肉體를 갖고 있고 있  
 다 하였다

그러나 人間은 추한 肉體의  
 本能을 抑制할수있는 精神的 自  
 制力을 갖고 있고 있는 까닭에 恒  
 常 善을 사랑하고 惡을 미워하  
 며 美를 기뻐하고 眞實한 生의  
 삶을 求得하려고 하는 것은 事實  
 이다 單純한 立場에서 나 自身  
 을 생각할때 무엇이 라고 自身을  
 책망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려 한다  
 너는 無能力者 悲屈한 人間 裕  
 된 人間 無計劃者等 何如間 吳  
 난 것만은 틀림이 없다  
 왜 하나님이 주신 生을 悲觀  
 하고 現實을 不滿속에서 살고  
 죽음을 論하고 있을가? 그러나  
 나 自身 浪漫主義者도 죽음을  
 두려워 하는者다  
 나 역시 잘살려고 하고 맛있는  
 飲食을 먹고 좋은 옷 입고 아담하  
 고 깨끗한 집에서 살려드는데는  
 나쁜 欲望인 것이다 왜 내가 이러  
 한 逆境속에서 사라가지 않으면  
 안되었을가?  
 왜 이러한 險惡한 社會에 태  
 여나서 온갖 서름을 다 받으며  
 살면 안되었는지?  
 너무나 애처러운 생각만 들고  
 限없이 울고만 싶으다 反面에  
 기쁜일도 많았다 그 一례로 親  
 友와의 討論에 時間을 갖일때 내  
 절고 討論에 時間을 갖일때 마  
 음의 良識을 얻고 瞬間에 幸福  
 한 時間을 갖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라

어느날의

한 齋語를

는 瞬間

아니겠지만

것이다

것이다

다

는

이다

큰

다

間

다

態로서

成功이

적은것이

록

찾으며

人間이

선택하는

그

한번

의

午後

벗 여성과

주교

반으며

이것이

인생의

高貴하고

사랑은

各者에

意見이

나에게

것어온것만은

大海를

眺望이

果然

을찾인저

完全性을

期하도

거기에는

生과死를

場所에

발하여두고

죽임의

散策하

全部는

神聖한

眞理?

크나

事實이

隣

隣

精神狀

그동안

眞實됨을

人間은

일은

다시

倫理

浪漫은

다시

倫理

浪漫은

다시

倫理

浪漫은

다시

倫理

浪漫은

다시

倫理

浪漫은

다시

倫理

浪漫은

다시

悲嘆의 절음이다 또한 우리人間은 연제라도 소리없는 命令에 屈服하고 말지이다 神아여 人生의 無常함을 아라 주소서 (筆者 習育部長)

III 絞門을 나설 때 III

벗이여 希望의 새 崔錫模 願하노라

빛서른 을뜻물天한 七四名學友 들이 밀려 드러오든 그때는 변

씨 一年前의 過去史 오늘 努力 과 忍耐로 싸우고 싸워서 瑩雪

의 功을 이루고 情은 先生任과 校門을 물러나야 할 가엾은 身勢

를 품긴 벗들과 相別의 잔을 나누어야만 하는 서글픈 心思 形

음할길이 없이 퍼이나 괴롭습나 다

面頰하면 곧센 靑春의 意志 그대로 살려 가지고... 에서 始

作한 우리 逸波를 無難히 習得 한 우리로서는 이제 社會에 나

간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닥쳐

오드라도 우리는 이를 突破할수  
 있는 힘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一年間 싸워 오든 努力과 忍耐  
 라 하겠읍니다 家族的인 雰圍氣  
 속에서 兄弟와 같이 지내오든  
 우리 五回生 歷史的인 三月二日  
 이 지나면 좀처럼 한테 모이기  
 힘든 벗들  
 이여! 별  
 별히 흐터  
 저가는 前  
 途에 光明  
 있기를 믿  
 따름입니다

저는 저  
 어도 才量  
 이 많은신  
 아나 學生  
 들의 人氣  
 獨占者이신  
 金先生任  
 색시처럼  
 상냥하게

### 速記의 五益 五戒

- ◇速記士가 되려는 大體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면에 있어서 有益한 點이 있다
- (1) 數多한 文字를 解得하게 되며 文章 術이 向上된다
  - (2) 政治, 經濟, 社會, 文化等 各方面의 事에 對하는 能通해진다
  - (3) 事物에 對하는 考察, 想像力이 發達한다
  - (4) 根氣強한 習性을 기르게되며 研究心이 늘어난다
  - (5) 自然的으로 頭腦가 發達해지며 聰明하고 敏捷해진다 또한

생기신 鄭先生任의 温和하신 목  
 소리로 그림 速記 다 해먹게  
 동내 人心은 全部 일고 그려  
 도 마냥 좋은 老總角 張先生任  
 時間이면 죄지은 羊처럼 모두들  
 북 내리숙인 적막을 깨트리며  
 〇〇代 모  
 모두가 키  
 에 쟁쟁합  
 니다.

정말 말  
 이지 先生  
 任들 보다  
 도 巖事堂  
 의 映函鑑  
 賞이 그림  
 게 되었읍  
 니다  
 미록 우  
 리가 해어  
 질지라도  
 友情만은  
 倍前계속하  
 기 바라며



호주라소 金明壽

主人과 소 하면 우선 나라에  
 떠올리는 것이 都會人들의 糧食을  
 마련하여 주는 지 一農家の 生活  
 狀態를 聯想케 할는지 몰으나  
 여기서 小인이 意味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尊嚴生活에 있어서의 一部組織體  
 인 會員과 役員을 말함이다. 곧  
 會員은 主人이요 役員은 소인  
 것이다. 主人이 소를 管理하고  
 使用함에 責任을 賦與하고 希  
 望하는 것은 主人의 意圖대로  
 잘 움직여 달라는 것이다. 또  
 主人에게 謙屈된 소는 自己의  
 使命을 銘心하고 어디까지나 主  
 人을 爲하고 主人의 志向하는  
 行動에 順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소에 對하여 若于紹介하면 소의  
 看板은 一은 일꾼이다. 돈 일꾼  
 은 보기에 도 엄청나게 생겼다.  
 主人의 體軀의 몇배의 巨軀를 가  
 지고 또한 銳利한 鬃을 變패의

武器로 裝飾하고 있으면서도 自  
 己의 氣勢를 소금도 誇張하는  
 氣色이 없이 主人이 賦與하고  
 目的하는 期待에 어그러지지 않  
 기 爲하여 一가령 荒蕪地를 開  
 墾하라면 時間의 長短을 가리지  
 않고 作業에 忠實을 期한다. 또  
 한 그뿐만 아니라 自己의 生命까  
 지 밭이 어 몸(肉)은 主人의 榮  
 養素로 가족(皮)은 裝具로까지  
 아끼지 않고 提供하여 어디까지나  
 主人의 것이 되는 것이다. 허기야  
 或者는 天職이기에 그렇다. 하지  
 만 그것은 그의 全部의 評價가  
 아날 것이다. 소의 逸語속에서 發  
 見할 수 있듯이 소도 感情의 動  
 物인 것이다. 소는 主人과 함께  
 作業을 끝맞이고 夕陽을 등애  
 지고 山고개를 넘을 무렵 앞에  
 猛虎가 나타났을 때 生命을 내걸  
 고 主人을 爲하여 싸워 이겼다  
 그러나 主人을 自己를 버리고 갔  
 다하여 殺害하지 않았다.  
 여기에도 소의 하는 일이 天  
 職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참으

로 소인(主人)에 對하여 命을 完遂  
 하지 않고 있는 것이야 命을 完遂  
 조금도 多들 없는데 總務가 그 命  
 命을 完遂치 못하고 會員의 命  
 命을 完遂하게 되는 이마당에 서  
 서 面議가 數次에 經過하였지  
 만 그때의 實績이란 勿論에 아  
 러보지요. 아러보니까 會務에서 도  
 내내 변이 없었나 이와 같이 흐리멍  
 멩한 處事가 卒業期를 앞두고  
 明若觀火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나  
 어이 여러분 앞에 變名이 實히 있  
 을까 다만 소만도 못한 癖이  
 라는 着板을 體物로 바라면서  
 다만 여러분에게 한마디 소를  
 부릴 수 있는 主人이 되어 주시  
 를 바라 마지 않는바이다

※三〇頁에서  
 四二九〇年三月七日

있지요  
 逸波式을 超越할 수 있는 다른 式  
 을 創造해서 後輩를 養成하고  
 싶은 마음

### 辯論해서 못이긴다

第一 次世界大戰이 끝난 후 나는  
 런던에 있어서 그때 航空界에  
 이름이 자자하던 스미트(彌)의  
 일을 보았다 하로는 스미트(祝賀)  
 宴會가 열리었는데 바로 내 左  
 便座席에 앉았던 紳士한분이 이  
 러한 유모야한 이야기를 하  
 였다 우리 소원을 이루워 주  
 는 神은 또한 소원을 없애  
 기도 한다 그리고 그 才談  
 家는 그것이 聖經에 있는  
 말씀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分明히 聖經에 있는 것이 아  
 니라 說스피어에 있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우물하는 생  
 각에 그보다 더 안다는 것을 나  
 라내려는 마음으로 아무 無私한  
 辯正官으로 자천하여가지고 說스  
 피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한층더 고집하면서 뭐?  
 說스피어에서? 안될말이지 그럴  
 수있나? 分明히 聖經에 있는 말  
 씬이지 마하고 辨正 못이긴다

### 左右銘

# 速記와 나 崔龍夏

敎養과 溫情과 愛護가 充滿하  
 是 速記學校 生活 一年間은 實로  
 은물쉬인 아릿다운 時節이었음  
 二겨진다 가슴에 必한 希望을  
 안고 入學試驗을 보든때도 어  
 歲月은 홀려 卒業試驗을 마치  
 보니 어딘지 모르게 서운함을  
 二기게되여 이제 卒業하고 나면  
 모든것이 追憶이려니 生覺이되  
 여 더욱더 아쉬움만이 커진다  
 이제 卒業을 몇일 앞둔 自身의  
 떠라 가운데에는 過去 一年間에  
 있었던 가지가지에 일들로 꼭  
 차 있는듯한 感을 느낀다 때로  
 是 周圍環境에 못이겨 悲哀와  
 苦惱에 쌓여 몸부림 치든때도  
 있었고 이럴때마다 速記라는  
 두자는 自身을 달래도 주었고  
 타일라도 주었으며 때로는 새로  
 운 勇氣도 북돋아 주었던 것이  
 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모 든  
 複雜한 環境을 暫時나마 이질수

## 銘 右 左

右便에 얕은사람은 己往부터  
 잘친한 親舊요 또한 그는 親舊스  
 피어를 專攻한 斯界의 權威者였  
 다 그래서 그 親舊에게 판단을 請  
 하기로 하고 묻게되었다 그친구는  
 眞상아래로 내발을 꼭잡으면서  
 이 잘못알고 저 분이 옳소이다 聖  
 經에있는 말씀이 分明합니다 하  
 다 돌아가는때도 그것이 親舊에게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거나 勿  
 論이지요 해무결 第五幕二場에  
 는것이지요 그러나 그 宴會에 손님  
 으로간 우리가 아니었소 왜 다른  
 사람의 실수를 그집어 내려고 애  
 쓸것이 무엇이요? 그렇한다고 그  
 가 우리의 친구가 될줄 아시오 왜  
 남이 체면이나 保全하도록 가만있  
 지 못하겠소 그가 당신의 意見을 물  
 은것도 아니요 또한 그것을 願치도  
 않을것이요 변분할 必要가 무엇이요  
 ? 모난들이 정(釘) 맞습나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 이 敎訓을 내게준 친  
 구는 벌써 故入이던지 오랬으나 그  
 敎訓은 아직 行進을 繼續하고있다  
 이것은 실로 내게 꼭 맞는 敎訓이었

있었고 떠날수 있었기 때문에  
 오를날까지 꾸준히 努力을 해왔  
 고 이것이 곧 空想에 가까웠든  
 새 希望을 이루키 주는 것인지  
 도 모른다

空想을 實現시키기에는 너무  
 나도 피로움도 컸었다 그러나  
 이제 모1 두가 지나가버린 瞬間  
 이고보니 더욱더 아름답지만 가고  
 언제나 이질수 없는 追憶이 되  
 여 버렸다 도리켜보면 自身이  
 工夫해온것이 모1 두가 우습거리  
 에 지나지 않을 程度로 無規則  
 했든 것이어서 아직도 不安속에  
 서 버서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숨길수 없는 事實이라 速記學  
 校生活을 通해서 理想과 現實은  
 너무나도 멀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 좋은 理想을 가  
 지고서도 實現하지 못하는 心情  
 이란 무엇이라 表現해야 좋을지  
 뜻한바 그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쩔지 不安한 마음 뿐이었다  
 入學後 여름放學이 되기까지에는  
 모1 든것이 順調로워서 學校에

左右銘

다 왜 그런고 하니 어려서부터 나는  
 내 兄弟들로 부터 허늘 아래에 있는  
 모든 問題를 다 가지고 辯論하였다  
 專門學校때다 그리고 거기 對辯  
 會를 쓰기 爲하여 辯論會에 參加하  
 고 가서 듣기도 하고 批評하는 가운  
 데 마지막 結論을 얻은것은 辯論에  
 勝利하는 사람은 辯論을 안 하는 사  
 람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안 할뿐만  
 아니라 地獄이나 毒蛇를 避하는 것  
 처럼 辯論하기前에 가졌든 自己  
 生覺의 絕對을 다는 것을 고집하는  
 것으로 結果를 지을뿐이다 絕對  
 로 辯論에 勝利는 없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겨도 잃고 저도 잃는다  
 가령 어떤 사람은 아주 無能하고  
 無識한 사람으로 證明하도록 변을  
 해서 너머뜨렸다고 하자 아마도 이  
 결음에 틀림없고 또한 유쾌히 생각  
 할는지 모르나 변론者 自身은 못한  
 이가 되고 그의 위신은 떨어졌기 때  
 문에 도리어 敵愾心을 품을 것이다  
 그러니 記憶하자 이 말을 기억으로 전  
 사람은 前生覺을 그대로 가지고 있  
 다

나오는 時間을 除外한 집에서의  
 自習하는 時間을 구라투로서 時  
 關表를 作成해가면서 모니는面에  
 무리를 해가면서 讀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계속되지는 못했  
 다 周圍環境은 점점 험악해짐으  
 로 因해서 精神的 打撃은 말할  
 수 없었다 그랬기에 副校長先生  
 任이 擔當하시든 國語時間에 精  
 神的 不眞者라는 課目을 배울 때  
 說明하시든 그 瞬間 自身은 남  
 모르는 피로음도 느꼈다 어찌면  
 說明하시든 그 말쓰미 自身の  
 境遇에 꼭 마쳤는지도 모르기 때  
 문이었다 가슴에 비차든 希望도  
 理想도 모니두가 甦된 꿈이런가  
 生覺했던 때도 한두번이 아니었  
 지만 그래도 잊지 못할 速記가  
 되어 꾸준한 努力이 いた곳에는  
 반듯이 아름다운 열매가 매저지  
 리라는 것을 스스로 느꼈음인지  
 時間에 餘裕가 있었을 때 보다  
 더 熱心히 하게 되었던 것도  
 또한 事實이 아니었는지 하여튼  
 어떻게 되어서 이만한 程度까지

라도 오게되었는지 모니두가 품  
 만 갈다 지내놓고 보나 그 當  
 時 세분 先生任들께서 細々한  
 注意말씀이 있었지만 自身도 그  
 때에는 理解하기 어려웠다 이제  
 實際를 通해보나 그때의 그 말  
 씬들이 너무나도 重要하였음을  
 느낀다 注意말씀 그대로를 有意  
 해서 잘 지켜왔더라면 좀더 나  
 은 實力을 가졌을 것을 하고  
 切實히 느꼈다 基本文字나 略字  
 를 배울 때 熱心으로 讀든것이  
 速度뿐이 아니고 反文練習까지  
 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더욱 어  
 려운 것은 常識問題다 常識인가  
 하면 漢字도 不足해서 는 알되리  
 라는 것을 生覺할 때 마음만  
 不安할 뿐이다

四二九〇年三月八日

人生이 짧기에 그 一年이라는  
 것은 긴 것이요 터구나 速記術을  
 習得하는 一年이라는 것은 決코  
 짧은 才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  
 러분의 金生涯의 六  
 十分之一을 또는 七  
 十分之一을 速記를 배  
 우겠다는 一念下에 萬  
 難을 무릅쓰고 忍耐와  
 努力의 結果로 榮譽의  
 卒業을 마시하게 되었읍  
 니다

여러분의 榮光스러운 卒  
 業을 마지하여 眞心으로 敬  
 意와 祝福을 드리는 바깥  
 니다. 여러분은 卒業狀을 받  
 을때 期待보다도 앞서 幻滅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푸라이드나를 가지십시오. 거기  
 여러분에게 敬意를 表하는 것은  
 그 卒業狀이 아니요, 여러분의  
 피땀어린 精誠과 苦難을 克服해  
 서 끝까지 시키온 그 忍耐와  
 剛志인 것입니다.

職場에서 或은 學校에서 1달  
 린 暇을 休息을 시켜야 될 그  
 時間을 速記를 배우기 爲해서  
 아낌없이 바쳐온 여러분이 아닙  
 니까?

**忍耐「테스트」에 合格者이다**

勿論 여러분中에는 一年이라는  
 貴重한 時間과 努力을 바쳐 배  
 운 이 速記를 生存競争의 有用  
 한 武器로서 效果的으로 使用할  
 분도 있을 것이요, 그렇지 못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速記士라  
 는 職業을 갖일분과 그렇지 못할  
 분이 있을텐데, 여기에서 事情  
 에 따라 그렇지 못할분은 虛  
 無를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그런분들에게  
 도 決코 一年동안의 勞苦  
 가 헛된 것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適者生存의 宇宙의  
 不變의 法則이요, 久闊의  
 生活이 斗争을 意味할때  
 여기에 不可缺의 要素는  
 忍耐일 것입니다. 지난  
 一年동안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忍耐할 수 있고  
 努力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當했으  
 며 卒業의 榮光를

연은 여러분은 이 「해스트」에서  
合格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만한 聞志 그만한 忍耐와 努  
力을 傾注한다면 이 피투성이의  
人生戰場에서 勇敢한 騎士로 認

定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물 生  
活의 「못도」로 삼고 나가신다면

지난 一年동안의 勞苦가 결코 헛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速記學校에 말을 들으며  
노았을 적에는 모두 똑같은 覺悟와

決心下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러나 今年에도 例年과 다름없이

卒業의 榮光을 차지하는 사람은  
半數도 채 못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별써 여러분들은 한사람씩의  
強敵을 물리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러나 「무라이」드까지라는 것  
이요 그 關志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 附託하고 싶  
은 것은 하나의 知識이나 技術을

習得하는데 바쳐온 努力以上으로  
그를 活用하기에 더욱 努力을 아

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우리나라의 速記界  
는 활미꽃처럼 이제 發芽期이면  
서 老衰期인 牙盾속에 말버등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矛盾을 除去하고 速記界의  
發花를 爲하여 贊된 役單이 되

기에 全力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될것을 確信하며 여러분

의 卒業을 雙手를 드려 祝福하  
는 바입니다 (筆者民議院速記士)

### 恩師에對하(感謝

(朴保和)

近日에 들어와서는 速記術을  
未熟하나마 조금이라도 더 鍊磨하

여 實事를 보아보겠다는 熱心에  
서 萬事를 재쳐놓고 아침부터나

와 猛練習을 하고있을나치면 新  
入志願生이 願書를 사러오는 것을

번번히 보게된다 그질때마다 나  
는 곧 一年前 나의 處地를 돌이켜

보곤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生覺하면 한날 지나간 꿈에 지

나지않는... 철 모르는 어린아  
이에 不遇하다 꼭 어린아가 불

명어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만  
그 빨간 빛갈에 好氣心이 생겨  
서 만져보고서야 불명어라는 드  
저운 것이구나 하고 認識하는 것 처  
럼... 나도 이제 와서 速記術이  
얼마만큼 어려운 高等技術인가를  
知覺한다 그러나 그때 나는 速  
記라는 두 文字만이 認識되어 있  
었다는 것이 지금 나의 率直한 고  
백이다 勿論 앞으로 얼마 안 있  
어서 들어올 新入生들도 그러하  
리라 내 恣意로 判斷을 敢히 내  
려볼 수 있으리 이와 같이 철 모르는  
그야말로 初年生을 대리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또는 비가 올 때  
나 눈이 내릴 때나를 漢論하고  
한사코 아무 不平의 말 씀 한 마  
디도 아나 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그 苦樂을 같이 하여 주신 先生任  
表現할 수 없을 것이다 가 거고 十  
그 기... 를 國民學校 一年生 처  
럼 하루에 三時間씩 고박 앉아  
서 밥으로 외우면서 五粒 十粒  
十五粒을 일일이 三角定規에 맞

추어가지고 그러든 時節부터 지  
금은 하마 十=個星期이 흘렀지  
만은 그래도 未熟하다 이제 웬  
말인가? 오늘부터 다섯 밤만 자  
고나면 卒業을 하게 된다 아  
그 蠟雪의 편이란 놀보고 무엇인가  
말할인가! 우리의 노만한 努力  
과 忍耐와 聞志로서 싸워왔건만  
... 그러나 나는 決코 長天을  
올려려 嘆息하지는 않는다 왜냐  
? 그 對答은 簡單하다 即 恩  
師에 對하여 背恩忘德한 所爲가  
되기 때문이다 今番 우리 五期生은  
決코 여의 先輩를 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確信을 갖는 까닭에 오늘  
도 나오고 내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速記術도 더 習得할 수 있고 머지않은  
將來에 우리는 모두 速記士의 이  
름으로 社會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 아  
나겠는가? 나는 다만 그날을 鶴  
首苦待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이  
것은 아직 未知의 事實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希望 아주  
點殺해 버리지 않는 다 다만 지  
금은 우리들을 이 처럼 希望의

所有者가 되도록 引導하여 주신 先生任들에게 無限한 感謝를 올

陸 鍾 晟

- 1. 두더지가 앉던 것이 多幸
- 2.至今 말한들 무엇과다
- 3.그저 대는대로
- 4.發慾的인 異性
- 5.없습니다
- 6.될수있는限 民議院速記士

金 泰 宣

- 1.여름에 시원해서 좋고 겨울엔 스텝과 오일'에 훈훈하여 좋았
- 고 비록 地下室洋屋이지만 내
- 집과같은 안도
- 감이 앞선다
- 단 경비대사령
- 부의 호출엔
- 아주!
- 2.부권이나 당침
- 되었다면
- 우들이 원하는
- 좋은 사부'를
- 끌라서 하나씩
- 보냈을텐데...

릴 뻔이다

檀 紀 四 二 九 〇 年 三 月 六 日 筆

- 1.一年間 일파학보 야유회비만은
- 꼭 반으려고 터우직 거렸다
- 3.글새 높은데서 바터만 준다면
- 4.이성판(말은 아직 나이가 어려)
- 연애판(어디 동성인 아들놈하고야)
- 5.감히 의원들의 발언요지조차
- 간척할 여유가 없었으니
- 6.우리일파식의 대중보편화를 키
- 하여 학원이나 설립할수있었으
- 면

徐 秉 運

- 1.歲月은 다시한번
- 빠르다고 말하
- 고싶고 人生은
- 속았다고 말할
- 氣力밖에없소
- 2.讀書과 運動이
- 없으나 兩者共
- 히 失敗라고
- 아쉽
- 3.서울의 하늘아
- 래에서 방향과

問

- 一 地下室生活一年間の 感想?
- 二 過去 一年間の 貴下가 何 하고져 했든 일?
- 三 卒業後 貴下의 去就는?
- 四 貴下의 異性觀及 戀愛觀?
- 五 速記錄을 通해서 본 貴下의 政治 刺意 若何?



이렇게 諷刺되면서 그림자 忠實  
 은가? 眞實로 理想的인 忠實  
 은 쓰레기통의 장마는 아나다  
 人間이 明瞭해진다  
 5. 偶者의 政治德은 民族愛의 体面  
 ① 舍德보다 雅하다 賢者는 ① 보  
 다 모두 弱하다  
 6. ① 人生目的의 貫徹  
 ② 眞實된 交際

1. 地下室이라고 그러니까 어천지  
 이상한 感이 드는군요 그러도  
 情은 學校가 아니었는가요 一年  
 동안에 있었던 가지가지에 아  
 름다웠든 일들을 말없이 간직  
 해주는 것은 教授뿐이 아닐까요  
 하여튼 섭심하군요  
 2. 아마 이 學校에 드려오고는 速  
 記學外에는 別로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3. 글세요 어떻게 될까요 每事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4. 相對方과 相互理解하는 가운데  
 서 人間性을 좀더 넓게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가운데 또

崔 竜 夏

그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  
 까요  
 5. 어느程度 政治面에도 눈이 떠  
 지는 것 같군요 아직 머렸어요  
 6. 能力者는 되지 못한다고 하드라  
 도 그것은 앞으로 卒業後에 라  
 도 努力하면 可能하리라 믿  
 고 언제까지나 速記에 對해서  
 는 한번 앞으로 x x 해볼까  
 하고 있지요

1. 家族的 弊風氣  
 2. 當身도 卑히 아는 事史  
 3. 一葉片無  
 4. 眞實한 女性이라면 ...  
 5. 叢事進行程度는 알았지요  
 6. 速記生의 共通된 思考

1. 어둠속에서 親友를 맺은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  
 2. 물어보는 것이 어색하군요 다  
 그렇지요 뭐!  
 3. 放浪三千里  
 4. 女性다운 女性이라고나 할까!  
 5. 會議進行과 一般政治常識이 늘

崔 錫 模

※(三頁에 계속)

隨筆

방랑하던  
고아의의  
죽임

陸鍾鼎

아! 이것이 性格의 悲哀라 할까?  
運命의 縮음이라 할까? 외로운 他鄉담  
에서 하늘을 짐용삼고 명을 자리삼  
아 적막히 비쳐주는 별들과 하로  
의 기나긴 고뇌를 이야기하며 북주  
림에 허덕이는 그는 배고픔을 움켜쥐  
고 다시금 그 번엿날을 回想하였다  
戰亂으로 因하여 아버지 어머니 是  
黃泉으로 가셨고 어린 몸갈 곳 없이  
방랑의 길을 걸어 왔었다 어릴적 같이  
뛰놀던 玉順이 도 生覺났고 뒷동산  
에 올라가서 밤마다 주인 명감에게  
푸중들 텃 일도 生覺났다 개울가 에  
서 榮植이 와 작난치며 고가 잡은 일  
모든 것이 어린 몸에는 何날 처  
나간 追憶의 꿈이었다 주의 의 추위는  
점점 불타 버져 찬바람이 옷 속에 숨  
어들다 사방은 적막한데 어 家에  
서 가 點 개의 울부짖는 소 들려  
온다 冥무진 그 울음 달을 들려  
온다 冥무진 그 울음 달을 들려

지장같이 變하게 하더니 故은 비를  
내린다 아마 이 비도 少年의 縮은 悲  
哀를 憧憬하는 울음 이 말까? 少年  
은 다시 자리를 고쳐 처마 끝에 바 짝 꾸  
구리고 앉았다 漏은 나 漏은 世上 어  
린 몸 하나 담을 수 없는 폐허된 世上!  
추위에 시달리는 그는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그리웠  
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空想! 추위  
에 못이 겨 두 눈을 사르르 감고 꿈나라  
로 가고 요 잠자는 그의 얼굴 에 是 世波  
에 시달릴 대로 시달렸다 夕사슬의  
난간에서 신음하던 그는 高요히 아  
무도 없는 외로운 곳에서 꿈이 永遠  
한 꿈으로 잠들었다 내리든 비는 고차  
고 달빛만이 어린 몸의 영혼을 위로  
하는 듯 처량하게 대지 위를 바 처 순다  
밤비 소리 들리든 그 날 밤도 夙時 時 間  
의 거품이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갔다  
이 땅에 외롭게 판 魂송이 의 못다 판  
국화 봉오리는 이 黃泉으로 가 버렸  
다 그의 얼굴은 喜怒哀樂을 비웃  
는 듯! 그는 夢과 함께 어머니 곁  
시는 곳으로 檀

檀 1930年三月七日

親切과 感謝

申 根 植

남을 猜忌하고 侮辱하는 것을  
人間만이 아닌 醜惡相의 一面이라  
한다. 남에게 親切을 베풀 줄 알  
고 이에 感謝할 줄 아는 것은 또한  
人間만이 아닐 수 있는 아름다운 것  
이라 할 것이다.

예로부터 人間은 萬物의 靈長  
이라 해서 이를 社會에 높이 評  
價해 왔던 것이다.

요즘 親切이나 謝禮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으나 하면 決코 그렇지  
는 않다. 요즘처럼 親切한 사람이  
많고 이에 感謝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많은 時代는 없다고 할 만 큼  
親切과 感謝 두 성의 사람들이  
다. 그러나 裏面에 치악한 醜惡  
性의 內면이 있거나 表面의 親切  
이기에 端善이요 지나친 親切이  
기에 誘惑이요 必要에 依한 親切  
이기에 阿附요 거짓 謝禮이기에  
嘲弄이요 物價로 謝禮이기에  
親切이 商品化한다고 보아도 그  
다지 큰 過誤는 아니라고 본다.

春 覺

徐 允 錫

봄 봄 어느새 새봄을 또 맞나  
보다 新聞 래디오 雜誌等 온갖  
"매스컴 무너 깨이 순"의 機關들이  
總動員되어 視覺 聽覺을 간조럽  
게 해준다. 래디오는 래디오대로  
봄의 頌歌를 날마다의 푸르메  
자녕고 興겨운 嚮園兼로 우리  
神聲을 刺戟해주고 新聞은 親聞  
대로 34投의 스페이스로 寫  
眞까지 날아 아지랑이 켜 봄 등  
산을 聯想케 한다. 雜誌는 또  
행어나 남에게 뒤질새라 性急하  
게도 正月달 부터 陽春號라 이  
름하여 讀者의 口味를 돈구고  
가벼운 호주머니를 털게 한다.  
그리하여 새봄은 強要되는 것이다.  
나는 三四年來의 버릇으로 나  
의 生理上의 變化로 봄을 느낀  
다. 어느새 봄이 왔고나 하고...!  
그것은 食慾이 減退되고 몸이  
나른해지고 가득이나 늦잠꾸러기  
가 터 잠을 느러지게 차표아진다  
그때에는 아차! 벌써 봄이 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는 나自身도 혼란스러웠음을 느끼게 되었다. 며칠前 어두운 밤 丁路에서 卍빠스스를 타고 卍洞에 내려 집에 들어오는 길에 한 五拾가량 되는 老婆가 흐느끼는 語調로 卍미안합니다만은 말 좀 들겠읍니다. 하면서 卍宿집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卍洞에 골짜기를 잘알기 때문에 卍三十分에 걸쳐 그집을 찾아 老人을 引導해 드렸더니 卍圖자리 몇장을 호주머니속에서 고내주며 感謝하는 것이다. 내담에는 親切을 베풀다는 것이 商品化하여 무참히 짓밟히려는 것이 卍조심해 들어가지 시라나는 人事조차 잊은채 되돌아와 버렸다. 이렇게 老人이 金錢을 준다는 것은 勿論 가다가 卍사랑이라도 사막이라는 뜨거운 心情에서 울어나올이겠으나 나에게 이 醜雜을 그냥 愆說로 퍼붓고 싶었다. 人情味에 넘친 따듯한 말 한마디보다는 小額인 眞正 金錢으로만이 고마움을 表示해야

고나 하고 晚覺을 自責한다. 왜 나하면 겨울 동안 空상맞게 卍구리고 앉아서 새봄에는 卍을 하리라고 잔뜩 버리고 想像의 世界에서만 卍고 다듬어 제법 華麗하게 構想한 여러 卍스케줄을 實現할 수는 環境에 幻滅이 서글픔만을 가슴 卍듯이 안고 卍빠지기 때문이다. 나 혼자만의 卍꿈이 언제나 實現되려는지? 卍생각수록 아득한 卍꿈이다. 어쩌면 永遠히 實現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 혼자만이 이러한 卍꿈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卍種의 滿足感을 느낀다. 겨운 卍꿈에 불을 발그래 물드라고 가슴 卍큰거리며 살며시 눈을 지레감어 陶醉되어 있는 少女마냥 卍 또한 봄은 菀蘊하는 거리의 女性들의 盛裝으로도 느낀다. 무엇에 卍뜻기는듯 이리저리 卍부게 서들고 돌아다니는 그들 卍 무슨 緊急한 일이 그렇게도 卍진진해에 날마다 생기는지?

만 될 것 처럼 느껴진 社會의 醜  
 惡相! 이같이 感謝가 商品化로  
 되었다는 것 더우기 내가 마땅한  
 말한마디나마 바라게 되었다는 것  
 이 表面만의 親切이요 同時에  
 篤善이었다고 생각하니 一抹의  
 悲哀마저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서  
 冊床앞에 앉은 나는 日常生活의  
 버릇이기에 新聞을 며 들었다. 그  
 야말로 萬物의 靈長나 다운 人間  
 어느분이 慈悲의 손길로 따뜻한  
 人情美談 한도막이라도 행여 찾  
 을 수 있었으리리해서 였으나 이날  
 따라 나의 視線을 어지럽히는 拳  
 銃強盜의 記事가 아니면 學生風紀  
 紊亂云云뿐이다.  
 이렇게 社會의 秩序는 親切과  
 感謝를 잃어버리고 아나 잃지 않  
 었다면 그것은 前述한바와같이  
 商品化로 된 것이며 人情味가 未  
 殺되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人間의  
 遺憾之事라 아니할 수 없다.

” 신뿌리 ”

알듯 하면서도 모를 일이다 작고  
 그리고 간에 그들대로의 期待에 가  
 슴두근거리며 追求한 나머지 울고  
 웃고 서운해하고 서글퍼하고 滿  
 足해하고 그들대로의 人生의 한  
 斷面을 體驗하겠지 하며 人生이  
 漸入佳境으로 微妙해지고 한  
 청 不可思議한 것으로 느껴진다  
 봄은 또 毎日 呼吸하는 大氣  
 의 薰々함으로도 느낀다. 코끝에  
 매섭게 寒氣를 부러냈던 大氣가  
 어느새 어떤 香氣로움까지 결드  
 러 춘 겨울동안 무다였던 嗅神  
 經에 어떤 甘美로운 感觸으로  
 살뫼이 기여든다. 그것이 나의  
 腦細胞의 어느部分을 刺戟하여  
 부질없는 幻想의 白日夢을 꾸게  
 한다.  
 봄은 確실히 神祕스런 季節이  
 다.

四二九〇年三月七日

어떻게 사람을

재미있게 할까?

「데오돌·루스벨트」大統領을 訪  
問하는 사람은 누구를 勿論하고  
그의 博學에 놀래지 아니하는 사  
람이 없었다 政治 外交 騎馬  
農業 그밖에 무엇이든지 그에게  
말하면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讚  
歎하리만큼 그는 博學이었다 무  
슨方法으로 그는 博學이었는가?  
알고보면 매우 쉬운 것이다. 언  
제든지 그는 손님을 請하게 되면  
그前날밤에 늦도록 서재에 앉아  
서 손님으로 무엇이 재미부칠것  
이라는것을 짐작하여가지고 자기  
에 對하여 책을 읽고 硯硯을  
더하였다 왜 그런고하니 그는  
사람의 마음에 들게하는 좋은것  
은 그가 가장 貴重히 여기는것  
을 이야기 하는것이라는 眞理를  
잘 알았기때문이나  
前 예일大學 文學教授 「벨프스」  
博士는 그의 人問性이라는 책  
에 이러한 이야기를 적은것이  
있다 「내가 여덟살 되었을때에

銘 右 左

한번은 고모대에 간일이 있었는데 그때바침 中年이나 되어보이는 紳士 한분이 하루저녁 그집에 놀러왔다가 내가 유달라 興味를 가지고있는 뽀트에對하여 밤새도록 이야기하고갔다 그래서 나는 버고모에게 그는 정말 배를 좋아하  
는 분이라고 하였더니 고모의 대  
답은 事實은 그가 배를 좋아할理  
가 없다 그는 유육에 사는 辯護士라  
고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밤새  
도록 배 이야기만 하였을가요」 하  
고 물었더니 姑母의 對답이 「그가  
점잖은신 분이니까 배가 배를 좋아하  
는 줄 알고 배이야기를 해서 너를 재미있고  
즐겁게 하느라고 배이야기를 한것이다  
그는 부러 네 마음을 맞추기를 努力하였  
다고하였다 나는 평생에 姑母의 말씀  
을 잊을수 없노라고 하였다  
그렇기때문에 萬一 다른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願하거  
는 相對者가 興味가지는 話題로  
이야기할것만을 지킬것이다

隨



想

英

다 가는 姬  
차 S K

英姬여!  
 지금 저등군 언을 밋겨선고  
 산등성이에서 사랑의 멜로디가  
 이불안의 마음을 자장가하여 주  
 고 있소 높았다 낮았다 날랐다 주  
 느렸다... 잠으로 아름다운 목청  
 이였소 저러히 저여인도 무척  
 예쁠거요 이따금 쓸쓸한 화파람  
 소리도 쉬여 무엇에 무슨뜻  
 자꾸자꾸만 들려오오 英姬! 저  
 들은 젊은 인생을 마음껏 연쇼  
 이 하는것이요 저들의 청춘이  
 사들여감을 피로워하는 것이오  
 英姬! 이제는 그 소리마저 그

치고야 말았소 다만 이따금 속  
 모르는 개만이 찾아주고 멀리  
 고독한 기적의 고향소리뿐... 새늘  
 켜 달빛에 인생은 처량하거만하  
 오 英姬! 지난밤 꿈에 창백한  
 모습에 남루한 치마저고리를 아  
 모렇게나 절치고 머리는 산발적  
 인 연기모양 물어헤쳐 느린채  
 애석히도 풀어저가는 英姬를 배  
 가 본적이었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며 바르르 떨어지는 입술엔  
 땀기마저없는 시들은 낙엽과도  
 흡사히 가련해 보였든것이오 아  
 들거리리는 눈은 짙은잠을 어가지  
 못하는듯 아들거리리는 기력없는  
 패력이 감싸들고 있었소 英姬!  
 나는 열바나 울었는지 모르오  
 막달겨들어 힘있게 그 여윈허리  
 를 포옹하고 싶었구료 그리고  
 말라빠진 시들은 낙엽에 따스한  
 나의 봄베로 흡족히 적시어 주  
 고 싶었던적이었소 英姬! 영희  
 는 아직도 나와 만나지 못할  
 유명을 달리한 사름이라고 생각  
 내치지지를 앓는구료 내가 영희

를 따라 이 세상을 저라린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언젠가 그리 시  
 들어간 영희가 다시나를찾아 이  
 광명의 세계로 다시 돌아온것만  
 같구료. 英姬! 막으나 반가웠었  
 소. 그나마 영희에게는 쓸쓸한  
 미소가엿보였소. 그렇게 시연히  
 웃어보이던. 그전 그英姬의 불은  
 찾아볼수가 없었소. 미소짓기까지  
 도 지쳤음인지. 그것은 너무나  
 나를과롭게 하였었소. 英姬! 그  
 러나 英姬는 아직까지도 나를잊  
 지는 않았구료. 그 미소아말로  
 나를 여직껏 살게하였던보람을  
 감사케 하였었다고 믿음직한 입  
 술에 나를 반기어주는. 그 무언  
 의미소. 아! 시연 이것이 영  
 원이요. 생시이기를 몸서리치도록  
 외치면서 달져들었소. 야나. 그것  
 은 생시గా아나라도 좋았었소. 英  
 姬는 나를 미련스럽게도 저바리  
 려하고 왔었소. 英姬! 생각이  
 나는구료. 창공에 무수한 품들이  
 속삭이고 이따금 버멀리서 기적  
 의 쓸쓸한 그림소리뿐. 다만 동

근달이 행복의 마음들을 인도하  
 며. 밤은 갈수록 적막하여 갈때  
 잊히지 않는 상념들과 피로운  
 마음으로서 산책하기에 피곤한몸  
 이 호흡조차 두려운 임후의 풍  
 포에서 그과도 그무엇을 찾겠노  
 라고. 심호흡을 삼키던 한쌍의  
 幸福者들은 영원한 불행이 없듯  
 이 영원한 행복이 없다. 이는 이  
 념아래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어찌해서 아름답게 엮어졌으며  
 저달은 어찌해서 즐거운 선녀가  
 되었는지 알듯하다는듯이. 또 앞  
 으로의 미크파 고생이 천만리라  
 손 치프리도 나는 그순간의 기  
 쁨과 사랑을 목살시키키는 삼았  
 소. 인생은 저르는 것이나하!  
 정열에 뒤덮힌 잠시후 천둥같은  
 지진의 함성이 이 고요한 산천  
 을 요염하게 생의 위협과 공포  
 에로 으르릉통탕하고 우리의 정  
 신을 휩사가버린대. 안도의 낮  
 은 호흡을 거두면서 의식을 회  
 복하였을때에는 이미 英姬의 굳  
 은손은 나의 온허리를 힘껏 겨

안고 있었던 것을... 그리고 불꽃  
 모르며 내가 가슴속에 英姬의 骨  
 빛질던 금빛의 머리결이 내 가슴  
 에 너를 거리며 긴박한 파도를 짓  
 고 찬란한 달빛에 울음을 휘돌  
 아 오던 英姬의 가슴에서는 무  
 연의 눈물이 나의 손등을 두들  
 기며 익혀버리던 때 나는 손등뿐  
 이 아니었소 온 전신이 다 英  
 姬의 그 눈물과 체온에 무르익  
 어 타고 있고 있었던 것이었소 다  
 는 어떻게 할 줄 몰랐던 우리들이  
 아니었었소? 아지 못하는 나의 손  
 은 英姬의 온갖 것을 믿음직하게  
 회여잡고! 英姬! 그 후 열마가  
 지냈을까? 英姬는 비록 아무도  
 없는 외로운 숲속에서만 가냘픈  
 손을 수줍은 듯이 늘릴새라 살그  
 머니 거두며 머물리 또하나의 세  
 계를 내다보며 매우 근심편 한  
 숨을 지축이 가라안도록 이 떨  
 리는 가슴이 현기증이 나도록 한  
 마람 치루고 나서는 나를 다사  
 주쳐다보며 그 무익을 말하고 싶은  
 듯 하던 그때의 순간! 나는

다시 있는 그 온갖 여성을 대표하  
 는 아름다움을 전부 독차지한  
 그 모습에... 창백한 애수의 표정  
 은 온한 열결에 반사되는 달빛!  
 황홀한 선녀의 맹세!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들! 나는 전신을  
 으스스하고 한바탕 떨었다오 배  
 눈을 의심하며 부름으로 다시  
 英姬를 무서워 해 보기도 했  
 것이었소 매마른 낙엽이 무겁게  
 열리며 나는 이렇게 고적한 산  
 속 깊은 절에서 살고 싶어! 영  
 영 저 세상에는 다시 나가지  
 아니하는... 어떻게 할까요?  
 기 무릎위에 자고 싶어요 그리고  
 한없이 저달보고 울며 울며 새벽  
 찬이슬 맞아 죽고 싶어요 하  
 무섭고도 엄숙하게 고백하던 英  
 姬가 아난 있었소? 나는 열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목메이도록 슬  
 퍼렸는지 그때의 英姬는 불꽃을  
 것이오 왜 英姬는 기다지도 외  
 로운 숲속을 願하였는지 아직도  
 나는 모르고 있는 것이라오 그러  
 면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난 싫어요 아! 世上은 무서워  
 요. 하며, 흐흑" 하고, 다시 가슴  
 을 들며이며, 한아름의 목마침을  
 끼어안은채 온 천지를 슬픔의  
 독아나로 휘쓸며 버리며, 마구  
 울어제치던 사랑스러운 나의 英  
 姬였소. 英姬! 나는 열마나  
 울었는지 모르오. 그칠줄 모르며  
 울기만 하였든 英姬와나! 밀어  
 날줄 몰랐던 나의 英姬! 믿음  
 언제 드셨는 것이인지조차 알수  
 없었던 잠고 깊은 신갈, 비극의  
 잔디! 이제는 그저, 소쪽새" 따  
 낭 외로히 하루밤을 서, 인육의  
 계의 슬픈자들을 위하여 應 없이  
 "소쪽", "불혹", "소" 쪽, "흐흑" 하  
 고 고백의 허루를 지난것이 아  
 니었소? 무정환 창조주의 작난  
 이시여! 그것이 나의 英姬를  
 떠나보내는 마즈막 비참한 송별  
 연이었다는 것을 천지만신인들 어  
 지알수있었소? 아! 그것이!  
 그밤이! 그 소쪽새가 이 못난  
 자의 최초의 사랑이며 동시 마  
 즈막 사랑인 나의 英姬에게 감

기를... 그연수의 폐업을... 아!  
 눈물이 가로막혀 속구치는 구슬  
 음에 미칠것만 같으오  
 英姬여! 그래도 영원한 나의  
 사랑이여!  
 이밤도 고독하고 슬픈자의 충  
 실한, 소쪽이가 되어주오  
 소쪽, 소" 쪽, 소" 쪽, 소" 쪽,  
 (朴 S. K.)  
 蕩子의 戀  
 金泰宣  
 여는 자가의 善書에선가 본듯  
 한 제목이 다만 줄지간에 생각키  
 워지는것이 그것이라 나도 잊대  
 여 빛을 드렸다  
 회고컨디, 속기를 배우겠다고  
 원대한 야망을 품어본지 어언  
 일년...  
 그간의 기머이라곤 오 중에서서  
 도 간혹 선생님들을 괴롭히든  
 가지가지 일뿐이 아닌가 한다.  
 수없이 끝난 따스한 여름저녁  
 호흡이 맞는 간부 몇 사람이 선

생님택을 방문하여 속기습득의  
 묘책이나 얻을까하여 가자는 것이  
 였으나 실은 날지도 좋으나 어  
 쨌 병수 먹고 물마시고 제자 된  
 도리에 택을 찾아뵈지 않을 수 있  
 으라 하는 말 "당자들의 변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해보나 엄하시기  
 로 유명하시지만 한편 파사한  
 張先生任택 어둠의 장막이 나리  
 커진 고요한 昌成가파트 ~ ~ 오  
 호실에 모처럼 처음 방문한 진  
 귀한 객들이라 반갑게 마저주시  
 는 선생님을 믿치고 다다미밖에  
 우선 자리잡았다  
 선생님 탐방왔습니다 우리 학  
 보때문에 "인라부" 겸해서 이  
 정도면 의사가 이미 통할수 있는  
 "센스" 외소유자 선생님...  
 준비해두셨다는 것이 소박한 술  
 상이 사제의정을 돌구기 시작했다  
 무려 3시간여 뒤 통행 "싸이렌"  
 도 귀한듯 재촉하는 민거리에게  
 아 귀운듯 인사를 여쭙다  
 자, 때이지"를 ◊ 넘겨 다음번엔

제2차 탕자들의 면 말, 金선생  
 도 같은 "아파트"에 사신다지"  
 "클세" 이만하면 서로의 의견을  
 묻지않고도 용케 목적지에 도착  
 할수있는 천재들이다  
 인사도 여쭙듯 만듯 무례하게  
 도 벌써 방에 도사리고 앉아  
 "인러부" 탐방" ~ ~ 어찌고 할줄  
 아는 무리들이다  
 구수한 하라버지, 냐새나는 "사  
 사해설"에 눈을 천벽이면서도  
 들 지난 아드님 "우철" 관에게만  
 은 작전상 애교를 부려도보는  
 술판들 더구나 귀가 "싸이렌" 소  
 리도 못드른냥 잔을 비우다가  
 권고에 못이기는 체 잠까지 자려  
 는 "얌체" 들이다 소관하게 밤을  
 새고 다음날 뽀뽀 아침에 "만영  
 히 계십시오" 의 인사로 사과를  
 대신한다  
 죄스런 마음이 ◊ 거친 몇일뒤의  
 "탕자들 또한련" 말, 鄭선생님택  
 은 "어디쯤이야" 알고도 모르는  
 처 큼직한 대문 앞에서, 선생님



... 외치면서야 조금씩 스런 감을 느끼는 아릿다운 제자들이다. 비록 어그래도 순종 전도개의 천절한 안내로 증문 벗을 지냈는지 아늑한 안방에 쫓크라고 앉았다.

저 이번에 「사혁람방기」나 풀가 샅기서요 섬해서 원고도 조금 부탁드리고요...

보드랍지만 엄(?)하신 우리鄭선생님도 해동아 민첩하시다.

집이 크니깐 하든 거대예파면 어긋나지않는 불교기로 위시로 조해가 서터병이다.

시간이 좀더 있으면... 애타는「탕자」들이 또 한번 「사이렌」의 영령을 복종치 않으려고 혁

대풀고 누으려 든다. 참 제자치관 눈치없는 「플치」 一輩들이다.

여지로 증문을 피해돌아 조용한행진에 나섰다.

또 몇일후  
인사성 빠른 학생들이다  
이번 정초에는 세배차 副校長

(藏事局長) 校監先生任(速記課長) 韓庶務主任은까지 「탐방」할 계획들이었나. 보지만 기회가 여외치 못했든 모양이다.

「탕자」들의 주먹구구식 탐방회수를 따져 무려 20여회

그래도 「탕자」들의 변이 아름답다.

여시 우리 5회생들이 지극해 제자치고 선생님을 종종 방문할줄 알어야만...

달이 뜨고 해가 지고 노엽이 졌다. 꽃이피는 춘三月 아득히 一年은 갔다.

三十一 「플치」  
(筆者 財務部長)



# 原稿病에 걸린 習育部

黃 善 明

卒業을 當하며 習育部의 活動  
 相을 지고자 한다 逸波學報가  
 單行本으로 나오기까지 그間 苦  
 痛이라는 것은 筆舌로서는 形容키  
 어렵다 지난해 겨울 敎學 때 부터  
 發展을 보게 되어 單行本으로 發  
 行한 것이다 그래도 五期生의 傳  
 統을 살려보겠다고 東奔西走하며  
 이리저리 原稿를 수집할 때 그 苦  
 痛이란 무어라 말할수 없었다 열  
 마일되는 會員으로 그나마 傳統  
 을 세우겠다고 하던일 때 오늘날  
 에 와서 이같이 적은冊子로서  
 滿足の 웃음을 지을 때 弱者의  
 웃음일는지 모르나 何如間 기면마  
 음 무어라 말할수있으리요 無能  
 한 손씨로 習育이라는 部面을  
 맡고 일할 때 自身의 不足함을  
 恨嘆하던 때 한두번이 아니었다  
 萬事가 原稿수집같이 어려웠  
 서야 어디 일을 하겠는가?  
 原稿를 내주세요 付託하  
 겠습니다 百番付託하고 付託하

서 原稿가 모일 때 그 氣分 이  
 루 말할수 없게 기뻐했어였다  
 하기가 그中에는 付託하기前에  
 내주는분도 계셨지만 大部分은  
 習育部員들이 原稿病에 걸리지  
 않으면 아니 되었었다 同等情을  
 함으로서 그 代價가 나올 때 열  
 마나 애타웠을까 그럴때면 다시  
 한번 無能함을 배이프게 느끼며  
 勇氣를 잃게되던 때 한두번이 아  
 니었다  
 責任感이란 이다지도 지긋고  
 안타까운것일까? 그러나 同志變  
 로서 뭉친 우리學友들의 힘 文  
 字그대로 五期生의 傳統을 살렸  
 던 것이다 너무나 성실하던일은  
 先輩들이 너무나 後輩를 爲하는  
 마음이 없었다는것 勿論 時間에  
 制約을 받을지라도 조금만 手筈  
 하면 될것을 하지못하고 卒業을  
 할 때 우리들의 憤感之事라 아니할  
 수없다 그러나 우리는 決코 급히  
 지않고 싸워왔다는것 비록 原稿病  
 에 걸렸더라도 상쾌한 氣分으로  
 卒業狀을 손에들때 기쁘기 限量  
 없다 (筆者 習育部長)

# 原子知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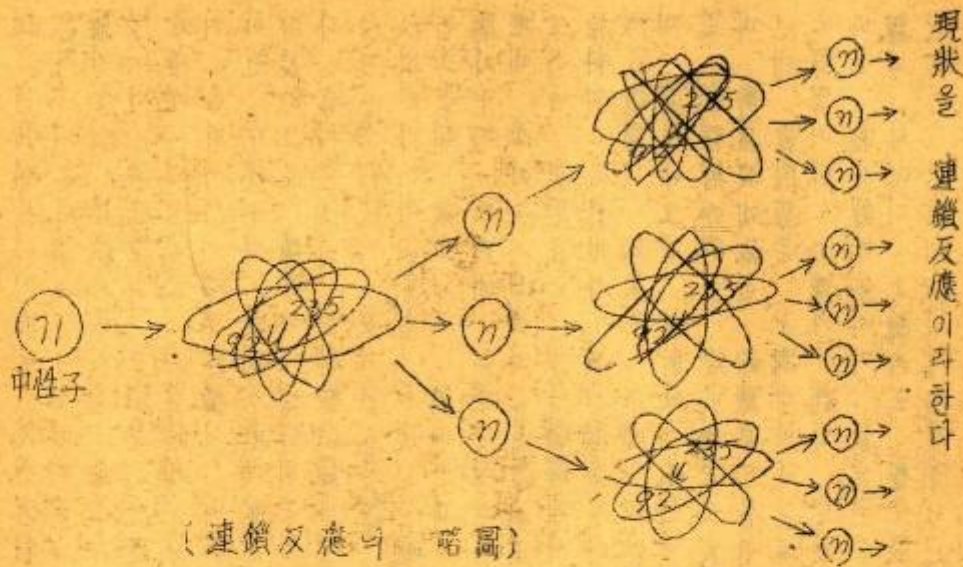
## 原子爆彈에 對하여

徐廷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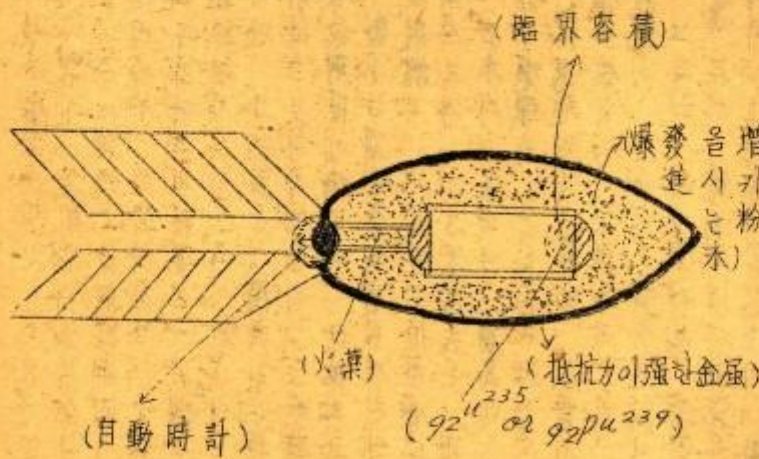
原子爆彈 (Atomic Bomb) 의 巨大한 威力을 全世界人類에게 보여준 現代科學에 革新的인 人物인 *Albert Einstein* 博士에 對하여 간단히 紹介 하기로 한다. *Einstein* 博士은 一八七九年 三月二四日에 獨逸의 武輪에서 탄생하였다. 그의 父親이 電業을 해서 少年期에는 평은한 生活이었고 *Einstein* 이난 이듬해 兩親은 7 두나히에 移居한後 그곳에서 天主敎學校에서 工夫했다. 여기서 그의 父母의 敎師는 語學에 純한 *Hebrew* 을 比보인 줄 알았다. 그가 열 두살 되던해 그의 親旧로부터 幾何敎科書 하나를 얻어 그것에 興味를 얻어 읽기 始作 하였던 것이 原因이 되어 1 유크릿스의 幾何學等에서부터 微積分學等의 數學을 自力으로 習得했다. 이렇듯 동안 그의 父親이 事業에 失敗하

자 그가 열여섯살되는해에 家族은 7 밀란으로 移居하고 半年동안 學校에 못가고 있다. 1 주릭 히에 있는 工科大學에 應試했다. 가 試驗에 不合格되었다. 그는 數學과 物理學에는 特別의 天才였으나 語學知識은 正反對이었다. 그 때서 一年다시 工夫한 다음 工科大學에 入學하게 되었다. 大學의 成績은 그다지 優秀하지 못하였으나 科學이나 哲學分野의 原理를 論하는 것을 좋아하는 熱心한 學生이었다. 그는 數學보다 物理를 더 좋아하였으며 이分野에 뛰어난 學生임에도 不拘하고 卒業當時 또한 在學時 늘 希望하던 조그만 職業조차 얻지 못했다. 그後 그는 敎師工夫를 하며 薄한 給料을 받으며 生活다가 一九〇一年에 親舊의 身勢로 1 베루네에 있는 1 스위스 1 專賣特許處의 檢査官이 되었다. *Einstein* 은 學生 때부터 빛 에 쫓고 빛 3 力의 根本的 問題를 再檢討하기 始作하여 專賣特許檢査官이란 쉬운일은 아니었으나





(原子爆彈의 略圖)



純粹한  $92^{235}\text{U}$  or  $92^{239}\text{Pu}$  臨界容積이  
 되면 그 容積中에서 數個의 自由  
 運動을 할 수 있는 中性子의 連鎖  
 反應에 依해서 瞬間的으로 核分  
 裂을 하여 爆發하는 것이다

即 自由爆發하기 전에 臨界容積의  $92 \times 10^{23}$  나  $92 \times 10^{23}$  의 두 덩어리를 上圖와 같이 抵抗力을 가진 金屬속에 넣어서 半球型의 두個를 一定한距離에 더어놓고 必要時에 두個가 합쳐져서 臨界容積이 되도록 하면 中性子の 連鎖反應에 의하여 自發的으로 爆發이 始作되는 것이다.  $1 \text{kg}$ 의  $92 \times 10^{23}$ 가 全部核分裂하면  $2 \times 10^{13} \text{ cal}$  程度의 莫大한 Energy를 放出한다. 이 Energy가 石炭 1000 噸을 연소할 때 放出되는 熱과 같고 太陽이 平均 1 日內에 2 平方哩의 大地에 照이는 日光의 Energy와 같다. 그러나 實地로는 原子爆彈에서는 原料의 1% 程度가 核分裂을 한다. 原子爆彈의 効果는 그 原子核分裂 때 直接 나오는 放射線에 의한 被災, 熱輻射에 의한 燒傷效果及 火傷과 衝擊波에 의한 破壞等에 의한 것인데 放射線은  $\alpha$ 線, 中性子,  $\beta$ 線, 及  $\gamma$ 線等이며  $\gamma$ 線의 一部와 中性子와는 核分裂에 의하여 放出되고  $\beta$ 線과 나머지  $\gamma$ 線과는 核分裂生成物이 崩壞에 의하여 생긴다.  $\alpha$ 線

은 核分裂하자 앞은  $92 \times 10^{23}$  또는  $92 \times 10^{23}$  等の 放射能에 의한 것이다. 처음 1 分以内의 放射線中에서 가장 멀리까지 危險한 것은  $\gamma$ 線과 中性子이며 中性子는  $\gamma$ 線보다 到達距離가 짧으나 地上의 地質에 다르면 그物質을 構成하는 原子를 放射性으로 하기 때문에 그地域은 殘留放射能에 의하여 汚染되고 數日 數十日間 入畜에 害을 끼친다. 殘留放射線은 水中 또는 伯空爆炎쪽이 效果가 크며 그汚染除去는 困難하다. 日本의 長崎나 廣島에 投下된 原子爆彈은  $20 \text{ kiloton}$  即  $2000 \text{ ton}$  의 TNT 爆彈의 Energy에 該當하며 이 原子核들이 反應을 일으킨 結果 그質量이 1 噸나 減少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 1 噸라는 質量의 Energy로서 轉換되었다는 것을 意味하며 그 E를 Einstein의 特殊相對性理論에 따라  $E = mc^2$  에 代入하면  $E = 1 \times (3 \times 10^{10} \text{ cm/sec})^2 = 9 \times 10^{20} \text{ erg}$  이 된다. 莫大한 Energy가 放出되었다 하므로 이와 같은 것은  $92 \times 10^{23}$  全部가

核分裂하는 데 10秒即 1000000秒라는  
 짧은時間에 그大량의 Energy가放出  
 하는것이다. 여기에 投下된 爆彈  
 은 1kg의 92U235를 利用한 標準原  
 子爆彈 (Neutral Atomic Bomb)이라한다  
 爆發과同時에 極히 高濕의 氣體  
 가 생겨서 좁은 空間中에서 大  
 端히高壓을갖고 이것이 막에 움  
 직인다. 이 氣體의 空氣膨脹 即  
 空氣壓力으로 被爆者莫大해진다  
 以上과같은 原子爆彈의威力은 저  
 毒毒한 倭들을하여금 戰爭의 종  
 지부를 찍게하여 過去三六年동안  
 倭놈의 착취하에 呻吟하던 우리  
 民族에 曙光을 가져오게한  
 日本의 長崎나 廣島에 投下하였  
 을때에 일을 더듬어보기로한다  
 西紀一九四五年八月六日午前八時十  
 五分(美空軍에서 公式發表한 時  
 間임) 廣島市民의 公式發表한 時  
 始作하려는 瞬間 爆彈의 洗禮를  
 받고 재로화하였으며 三日後에  
 는 長崎가 날러가버렸다. 이單한  
 發의 爆彈으로서 九萬余名의 男  
 女老幼가 黃泉行을하였고 爆發後

의 放射線에 依한 被爆의 報告를  
 綜合한다면 X-ray가 血球를만드  
 는 骨髓를 破壞시켜 白血症을  
 일으켜 죽어갔고 病菌으로부터  
 保護해주는 白血球가 破滅해  
 어져 傳染病에 걸려죽었고 爆彈  
 이 爆發한 直後에는 조곰도  
 치지 않았던사람이 五年後(또는  
 六七年後)에 疔님이되고 머리털이  
 다빠지고 하는 등의 일이生겼고  
 男子와 女子는 적어도 한때는  
 生殖能力을 喪失했었다. 만일 爆  
 發後에 天命이도우사 尤死一生으  
 로 死의 苦境에서 살아나온  
 처녀가 身體의 아무런 異狀도  
 없었다. 五六年이 지나서 머리털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는 情形이  
 있었다면 꽃다운 青春을 自然과  
 함께 즐기기는커녕 結婚도 하기  
 어려운 殘한事情이었으리라. 또한  
 地下로에 있던사람들은 재로화하  
 였으며 그後 約二〇萬名以上이  
 死은하였다 한다. 이와같은 原子彈  
 의 威力보다 더強한 水素爆彈(水素爆彈)  
 에對해서 說明하려한다.

水素爆彈은 一九四九年頃 *Bottle* 같은 科學者들이 가버운 原子核 即 重水素 ( $H_2O$ ) 나 三重水素 ( $H_3O$ ) 을 原子爆彈의 周圍에 넣고 原子爆彈과 같이 일어나는 高溫(溫度가 一億度以上)으로 말미암아 重水素와 三重水素가 結合하여 重水素十三重水素에 해당하는 原子核反應이 일어나 그結果로서 中性子が 再次 *Quartz* 또는 *Quartz* 에 核分裂을 하여 *Energy* 가 發散되어 原子爆彈의 威力에 100倍로 부티는 1000倍나 된다 는 것이다. 그런데 *Quartz* 에는 두種類로 나눌수있다. 1950年度에 完成된 重水素를 利用하여 만든 것과 다른 하나는 1955年三月一日 *Bikini* 에서 實驗한것은 *Wilson* 을 原料로 하여 만든 것이며 *Atomic-Bomb* 에 500~650倍나 된다고한다.

그러면 原子爆彈을 어떻게 防備하는가를 簡單히 要點만 말한 다. 우선 放射線을 防止하는 것인데 1米以上の 深크리트天井이면 1噸에는 充分한 抵抗이 되고 中性子에 限해서는 中性子를 捕獲

할수있는 物質로서 따라핀 지 또는 *Carbonium* 金屬板을 三重三重으로天井에 부치거나 上部에 鉛을 두 層에 하여 나무를 심어 恒常 水分이 있도록 準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地上에 있을境遇 特避할 餘가 없으면 直射光線을 보지 않도록 注意해야 할 것이다. 이는 1-1線이 視覺器를 破壞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原子爆彈의 세례를 받은 地域의 生産物은 먹지 않도록 하는 것筭이며 또 樞射熱을 防止해야 하는데 爆發을 中心으로 大略 300米內에는 60度以上이라 하니 防空壕門을 될수있는 限 적게하고 爆發豫定時에 密封할수있게 地面下를 利用하는 것이 理想的이라 한다. 또한 爆風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爆風의 圧力에도 充分한 抵抗을 갖는 防空壕가 必要하다. 地面에다가 1米幅 그리고 1米以上의 深크리트두개의 天井을 가질 比率로서는 充分하다 한다.

이와같이 神祕스러운 20世紀의 現代科學에 상징인 原子力은





막아주어서 多幸히 次開는 中止  
 되어 生命을 건졌다 이것은 7령  
 권 1-1 생애 가장 큰 글자로살만  
 한 事件인 同時에 이 經驗으로해  
 서 그는 사람取扱하는 技術을  
 배우게 되었다 다시는 남을 없  
 이여기는 흉나 글을 쓰지 아니  
 하였고 또한 남을 망신주거나  
 批評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7령 권 1-1 이 언제나 左右銘을  
 삼는것은 남에게 賤論을 말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賤論하지 말  
 라"는 聖句였었다 그의 夫人과  
 또는 사람을 南北戰爭當時에 南  
 方사람들을 나쁘게말하면 "노릴것  
 이 아니라 바쳐생각하라 우리가  
 그들의 처지에 있다고보면 우리  
 도 또한 그들보다 決코 낫것이  
 없을것이라"고 忠告하였다  
 우리가 萬一 망할지식 주일날  
 하고 남을 인정없이 꾸짖고살을  
 때에는 잠간 鎮靜하여가지고 7령  
 권 1-1 은 이런때에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여 봄이 어떻게 7  
 다른사람이 훗하여 좀더 나아지

고 規模있게 向上하기를 바라는  
 것은 좋으나 그것보다도 먼저  
 自身이 土地境에 이르는것이 더  
 솔지 앞을가? 오로지 자기만을  
 爲하는 처지에서 본다면 남의  
 發展을 꾀하는것 보다는 自身의  
 發展을 힘쓰는것이 더욱 有利한  
 것이며 더욱 危險성이 적은것이  
 다 詩人 7뿌라우닝 1-1 이 말한바와  
 같이 사람은 힘에 對하여 抗  
 戰할때에 비로소 값있는 生活이  
 시작되는것이다 내집門앞이 어지  
 러운것은 못보고 남의 지붕에  
 눈덮인것을 不平하지 말라"는  
 孔子의 教訓이 우리마음에 살아  
 움직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먼저  
 自我完成을 힘쓰자 (8편집부)



# 필로회 푸

○金俊永 海軍대 (海兵隊) 出身으로

는 지나치게 예뻐말곤하다 恒

常 顔은

○李柱泰 室內 禁煙派의 領袖. 다른

곳에서는 피워도 그의 앞에서

는 절대 어림없는 "가모었"

○ 리차드 위드마크

朴相國 若干 多辯이나

○ 兪善性은 그의 笑聲을

○ 來英培 늘신한 키에 국

은 眼鏡이 敎使다 입

이다 그의 말을 듣기

○ 徐任仁 발수가 적다해서

○ 無口 〳그러나 間或 지나친

○ 論하는 第二世 性格을

○ 陸鍾采 후판에 그림도 잘그리지

○ 만 〳대신 〳도 유명한 재주덩어

○ 리 제다가 짓구진 作亂까지

○ 姜萬洙 이설프게 村새씨를 主물

르다가 주먹다짐의 失戀을 當

○ 하였다나 그러나 速記에는 歡

○ 崔衡重 X X 를 타면서도 速記를

○ 崔泰宣 산뜻한 와이샤쓰에 멋진

○ 스타일 酒覺覺首이며 또한 速

○ 記 問題視하지 않는다 韓지長官

○ 아 드님과 같이 速記하겠다고

○ 金容煥 速記에 시달리느라고 X

○ X X 도 잊은 모양? 주책없이

○ 速記를 잘하니 가로대 영감이

○ 崔錫模 江原道 特産物? 그의

○ 特異한 사투리는 尊友들의 口

○ 味를 도구나 江原道 사람은 좋

○ 거든!

○ 洪貞憲 詩으로 무척 異常한 詩이

○ 必是 處女(?)인 故로 內心異性을

○ 그리워 韓다고 해서 (새침이) 이

○ 라고나 해두지

○ 金永浩 速記도 오동동 배도벤도

오동동 음변도 오동동이요 울

넘어, 놀랜도끼"나 紹介해주슈

하고 呼請하는 멋진 젠틀맨

金一謙 速記書房 奉養라가 歲月

은 흘렸소 하소연한들 所用있

으리요 君은 速記學校 室物 名物

시어머니 이다 速記가 人生의

全節은 아니었다

崔龍夏 沈着한 君의 모습 살버

러지가 아니라 速記버러지 어

딘지 모르게 느껴지는 空想派

金明壽 巡警 벗살에서도 惡索을

걸었다는 速記外 交哲學에 第一

人者라고

陸鍾晟 誇우적거리기는 품이 커넵

다고 잠간 불인 別名이 다리

박재표 순경 換票 云云이

失手하여 환포 환포 해서 드

디어는 환포로 落着

李天永 암전히 工夫살하기로 이

름나 日 수집은 處女

李康恒 어째서 장아지인지 몰라

그러되 如何든 沈着한 愛國班

長篇 장가" 버기에도 솜씨있어

~ 級

丁明淑 키여운 복술이 틀림없는

부자집 맞여누리감이였다

崔保和 "넘버 세컨드맨" 速記도

야무지게 잘하지만 장가" 도

잘두어 二級 조그맣고 탄해서

"대주방망이" 이요 담배는 李

副議長과 맞먹을거다

金大煌 第一 나이어린데도 어른되

가나고 誠實해서 失手が 없을

것같다

洪銀慶 인제나 웃음을 떠음은연

글은 福을 한아름 안겨다주는

것같다 놀랜도끼로 亨通

白仁基 "收金가방" (?)을 들었대

서 白課長이고 웃기 좋아하는

사람

徐允錫 誠實하고 암전하기를 들

재가라면 서러워할만큼 암전이

徐秉運 말이 많고 떠들기 좋아

한다 곧잘 떠들때는 벌통썰서

놓은것 같으니 辨護士 開業하면

將來가 촉망 자칭 守門將이라나

泉鍾學 떠판이라 그런지 사람이

좋아

申樞植 웃기잘하고 大部分은으로

詩 李 蓬

7 눈  
말은 湖心이라고 누긋이 지퍼온  
내 가느다란 맥박이  
자꾸만 太陽의 탓이라고만 뇌질  
이면서 맑은 유리알이라고 일러  
온 대나절이 월짜 등마루를 넘  
어간것은 多幸한일이다

피아관 旗幅위엔  
마음이 찻들고

눈은  
진정 눈물을 안가슴에 저녁기에  
水晶보다 더한  
마음을 안고  
기인 날을  
새로운 첫

별과 바람과 하늘 그리고  
할머니의 微笑를  
품안에 간직한다.

김 동 의

文章力이 强하다 湖南新聞記者  
님이시다

申丙均 短靴에 밧나는 눈이 마  
치 닷도상을 聯想

林文基 조그마한 사람이 관 하  
는것이 그리 많은지 思想의

로는 確固한데 모스고너는 大  
通한다고

黃善明 일을 한번 잡으면 끝까  
지 늘 줄모르는 고집쟁이 왈

石頑 年間 智育部長으로  
꾸준히 학보를 내온 포도也다

(폰頁에서 變號)

그이는 나를 고민케 하는구나!  
나 때문에 그이도 고민이 된다  
면 그는 x x 여자대학 배지  
를 단 아름다운 여인! 지금은  
다만 품속에서만 만날수있는 다  
시오지 못할 그리운 사람!



# 달팽이

李奎

여기 숨 가쁜 가슴 가슴이  
 또 하나의 行列을 이루고  
 발뿌리 발뿌리 마다  
 고달픈 腫孔에는  
 恒時 무거운 조름이 스며  
 무거운 무거운  
 天刑의 닳이라서  
 무거운 몸 어깨에 지고  
 오늘도 耒日도 또 寸刻을  
 盲目속에 움직이는 偉大한 意志가  
 또 하나의 觸角을 잃고  
 平和를 짓드린 파아란 꿈이  
 머언 地平線上에서 呼吸을 반하면  
 해파라기 몸속에 呼吸을 하는  
 觸覺을 잃은 달팽이가 새로운  
 座標를 創造한다



# 告白

당신이 말아주셨기에  
 저는 처음으로 자란 것을 알았  
 습니다  
 당신이 아시기까지는  
 저의 肉體가 醜하고 크기만한  
 事實은 東西南北의 分間조차  
 저는 아지 못했읍니다  
 거칠은 저의 어깨는 바위와 같이  
 偶鈍하고 까무러져 있었읍니다  
 그러던 것을  
 당신의 益獻한 힘줄맞힌 손표락이  
 저를 안어 주셨읍니다  
 발은 오동동을 알쓰를 배웠읍니다  
 心臟은 뛰놀 줄을 알았읍니다  
 지금 저한테는 親自身이  
 무척도 귀엽답니다  
 당신한테 지금  
 제가 기여운 것과 꼭 같이

— 紅三点合作 —

10月28日 혹자는 나를 보  
고 美男이라고 일컬어주는 자가  
있다 이는 물론 '아치' 비슷한  
말인 줄은 변연히 알면서도 나는  
물래 거울을 다 쳐다 보곤  
한다 아무리 뜯  
여지로 맞추어  
보았던들 일천  
여치의 아름다  
움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아이!  
왜 이렇게 널클이 우  
중중하고 눈이 작고 이마가  
좁고, 살이 검고, 죽은 개가 있고  
또... 이렇게 증연증연 거리다가  
는 고만 외면을 하고야 속이  
후련한 것이다 오런데도 불구하  
나를 보고 칭찬해주는 사람을  
가끔, 더러 찾아볼수 있는 것이다  
그럴때면 事뻐말로 말이지 싫지는  
않다 더더군다나 상대방이 어떤  
뻐 女性이었을 때에는 흥조까지  
뛰어나오면서, 무슨 점손의 밑뽕  
하고 끝을 드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실망을 하게



된다 지식과상식 때 실력이 부  
족하다는 아 주없다는 이  
國의 속삼을 슬적이라도 알았  
다며는 저들은 필시 나를 무척  
럽할것은 명약판파인 것이다 그녀  
석 생김생김은 똑똑한데 공부는  
커나와 도무지 인사성도 없을뿐  
더러 카족성도 없고 점잖지도 못  
하다 근 이럴때의 내 입장을  
생각해보라 아이 國이는  
무척 우물하여야 할  
계다  
10月28日  
가을은 정말  
총각마람이 부  
다 덕수궁의 잔  
다를, 말스, 로 혹은, 명궁로  
매만지며 호수가이, 배외에 절터  
왔었던 내가 무척 기특하기도 하  
커나와 분수의 용솨음치는 찬관  
한 모습은 가관이였다 그리고  
이 온갖 쌍쌍들의 희희낙낙한  
모놀의, 밀회는 未日의 그들의  
아름다운 青春世界를 이루어주는  
키, 이기도 한 것이다 이리저리로

투버투버 거닐면서 나는 보지않  
 겠다. 듣지도 알겠다. 말도 알겠  
 다고 하면서 "애 相德아! 나는  
 너를, 여자로 生覺하고 너는 나를  
 리베로 生覺해서... 이렇게, 아백  
 크하는 거라고 해두지?" 그는  
 오히려 펄쩍 뛰며 "내가 男子고,  
 라고 우저면다. 확실하 봄바람파  
 는 좀 질이 달른 모양이다 하  
 / 하! 하여간 이곳 따듯한 정관  
 에는 온갖 아름다운 무리들이  
 자면을 즐겨거히, 샅다들 누르기에  
 웃음을 그치지못한다 아! 저들  
 은, 젊음을 알았을 것이다 이 人  
 生의 맛을 음미하려고 할진대 나  
 는 어찌 다만 머언 未來를 손  
 게 약속하고 모들의 이 고독을  
 참아보는 것이며 그누구의 모습을  
 이렇게 덕수궁의 허공에다 그려  
 놓고 아롱색이며 발길을 돌렸다  
 "다음봄에는 호랑나비노릇을 특  
 록히해야겠군" 입속으로 뇌까지  
 면서  
 一月一日 주석이 만발한  
 창경원을 빌렸다. 줄줄이 초아나

네들이 오늘을 즐겨 앓돌고 웃  
 음짓고... 온갖것이 기쁘게 후  
 가없게 또 고독하게 보여진다  
 굵직한 왜줄이 임허버린채 自由  
 에서 구속당하고 希望을 막달당  
 하고... 그러기를 몇個星期! 저  
 들은 人間들의 잔인성을 얼마나  
 닳탈 것인가? 얼마나 저들의 租  
 상을 원망하며 따듯한 父母의 사  
 랑을 오죽인들 그리워 할까보나  
 ? 저들이 좀 더 自殺이라는  
 천재적인 기능을 습득하였다면;  
 아! 하나도없을것을... 人間은 쌍  
 쌍이 그들의 決意를 웃음짓고  
 저들 고독에게 울분을 자아주고  
 ... 악취미 인간들... 애처롭게  
 바라보는 저들 눈매에서는 憧憬  
 이라는 最後의 戀心을 머금고  
 ... 다시 발버둥 치며 뛰노는 것  
 이다. 아나! 닳찬들 무었하겠노  
 ! 하는듯이 다만 그들 創造主에  
 게만 복수를 돌리는 ... 그들!  
 필시 時代의 역행은 人間이 저철  
 창속으로 動物이 될것이 아니라  
 斷言하리, 아나 人間이 人間の



대우를 받지 못하며 自由 없음은  
 저를가련하고 測隱한動物과 다른  
 배우엇이요! 향가리수를 鐵窓의  
 動物化하지말라!  
 ~ 一月二日 과거는 다시오지  
 않을것인가? 그사람은 가고야말  
 았고나 수집은듯이 고개를 꼭수  
 구린 그뿔모습! 머리를 단정스  
 럽게 잘게 비서내린 바슴에 들쳐  
 한사람! 어느모로 보던지 아름  
 다운사람! 그사람은 영영가고야  
 말았고나 상그머니 머리를 들어  
 훑쳐 나의 얼굴을 치어다보던  
 그리워지는 차람! 곱살스럽게  
 발을모으고 무릎위에 췌가방을엮  
 고 두손을 정히 놓으고 무거운  
 침묵에서 날씬한사람! 그는 나  
 의 피를공개 하며주었다. 그러나  
 어쩔수없는 사람. 건드릴수없는  
 가시철망속에 흐스라히 핀 꽃  
 아무도없는 단풍이라면 년꽃아  
 능이라도 절어보고싶은 나를좋아  
 하는듯싶은 사람! 아! 그사람  
 은 가고야말았다. 캄캄한 전덕키  
 를 샅분히 헤키면서 꼭뵈어오

아내속이는 必結  
 月給封套를 잔뜩 기다리든 마누  
 라가 돈을 받더니 福가 回動한  
 모양이다  
 안해 " 왜 삼수圖이 비는거야?  
 男便 " 거 말야 親指를 하고 내기  
 를 했거든...  
 안해 " 무슨 빌어먹을 배기야? 응  
 ?  
 男便 " 아나 세늬이서 누구 따누  
 라가 第 몇지고 男便말에  
 服從을 잘하나? 그래서 一筆  
 된 안해를 가진 男便이 삼수  
 圖을 내놓기란말야 그런데...  
 안해 " 그런데 어쩔단 말이예요?  
 男便 " 그런데 고만 不幸福게도  
 당신이 當選을 했거든; 짝짝!  
 안해 " ? ? ?  
 男便 " 건든 건든!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사람  
 은 후서동 언덕바지 어느 이웃  
 집에 사는 사람. 다시 만날수도  
 있는사람! 아! (以下五頁繼續)

短篇奇談

後生을 輕視하지 말라

陸鍾鼎

인물 孔子와 須의 道徳이 높으신  
 孔子님께서 어떤날 제자들파같이  
 馬車를 타고 興遊次로 가는途中이다  
 아더 어떤 村落아이들이 놀기좋은곳  
 이었다 公자님一行이 그곳을 지  
 나려할때 여러아이들이 노는것을  
 보았다 그중의 한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같이 놀지 않고 혼자앉아  
 있는것을 公자님께서 보시였다 머  
 리를숙이고 가만아 앉아서 췌어진  
 기와장을가지고 城을쌓는 놀음을  
 하고있는 그 아이의態度가 이상  
 하여 公자님께서 마차를 그아이  
 앞에 멈추고 親히아이에게물었다  
 1애 너는 어찌하여 다른아이들  
 과 작난하지 않고 가만아 앉았  
 는가? 하니차 어린아이가 천  
 연스럽게 대답한다 1작난하는것이  
 쓸대가없습니다 작난하다가 옷이  
 과도 찢게되면 그懲이 위에는  
 父母에게미치고 아래로는 문중에  
 까지이루니 그와같은 不美한일이

또 어디에 있겠읍니까? 하고는  
 노모양으로 城을쌓고 앉았다  
 偉大하신 孔子님이 조그만한 어  
 린아이에게 기갈들다시피 말을들  
 고나니 아무리 성현孔子님일지라  
 도 마음성이 좋지못하였던모양이  
 다 1요놈! 조그만한놈이 어른앞  
 에 당돌하게! 하는 態度로 너  
 는 어찌하여 馬車를 피하지않고  
 그와같이 앉아있는나? 1채한즉  
 옛날부터 오를날까지 車가城을  
 피하는것이지 城이車를피한다는것  
 을 듣지못하였읍니다 1이아이 斷  
 答이 하도기특하여 孔子님이 車  
 에서내려 아이걸으러가서 孔子가  
 1애 너 나이는 몇살인데 이와같  
 이 말하느냐? 1아이가 사람이난지세  
 살이면 父母를알고 도끼가난지삼  
 살이면 다름질하며 고기가난지삼  
 살이면 배다에서 해염질하며 이  
 것이 어찌 천성적이 아니겠읍나  
 까? 1 公자님이 더욱 기특하여  
 1너는 어느동리에살며 姓名은  
 무어냐? 1아이가저는 빈한곳에  
 살며 姓은 1할이요 이름은 1위인  
 데 자호는 1짓지않는것같습니다

卅十卅

풍자 7애! 너 나와 같이 놀면 어떠냐  
 ? 아이 7집에는 嚴父가 있으니  
 맛당히 섬겨야 하오며 차모가 계시오  
 나 받들어야 하오며 형님이 계시니  
 풍경하며야 하오며 어린아우가 있으  
 나 가르쳐야 하오며 스승님이 계시  
 오니 배워야 하오나 놀사가 있  
 겠읍니까? 풍자님께서는 더욱  
 어린아이에게 정이 붙어 그곳을 떠  
 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별로 할말  
 은 없고 말한 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빌지게 되니 그제는 장기쪽을 써내  
 며 그러면 나에게 장기쪽설흔 두  
 개가 있으니 나와 같이 장기를 두지  
 않겠느냐고 말한즉 아이 7천자가  
 장기를 좋아하면 관술을 다스리지 못  
 하고 제후가 장기를 좋아하면 그릇  
 가 정사에 비치며 선배가 장기를 좋아  
 하면 尊問을 폐하게 하며 백성이 장  
 기를 좋아하면 가사에 밝가 있으며  
 노복이 장기를 좋아하면 매를 변하지  
 못하며 農夫가 장기를 좋아하면 農  
 事는 어찌 하리오 저는 두자 앉겠읍니  
 다 孔子 7내가 天下를 平和하게  
 하려는데 너의 意見은 어떠하냐?

아이 7天下는 平和하지 못함네다 高  
 山과 深海가 있으니 高山을 평하게 하  
 면 금수는 어디서 거처하며 江河를  
 때우면 어디서 살겠읍니까? 天下  
 는 임의가 죽지 않사오며 能히 평할  
 수는 없읍니다 공자 7네 말이 아주  
 롭하니 몇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다  
 天下에는 무슨 불이 煙氣가 없으며  
 무슨 물에 고기가 없으며 무슨 馬에  
 駒가 없으며 무슨 산에 돌이 없으며  
 무슨 나무에 가지가 없으며 어떤 사  
 람이 근자며 어떤 사람이 소인이냐?  
 고 풍자께서 물은 즉 하는 말이 아이  
 7번더 불에 煙氣가 없으며 우물에 고  
 기가 없으며 竹馬에 駒가 없으며 高  
 산에 돌이 없으며 賢子는 근자요 愚子는 소인  
 임니다 7하고 斷答하였다 아이 7先  
 生님께 물을 말이 있읍니다 오리는  
 어찌하여 물에 잘 뜨며 기러기는 어찌  
 하여 잘 울며 송백은 어찌하여 겨울에  
 도 푸른가 하고 質問을 하였다 공자 7  
 오리는 발에 막이 있는고로 잘 뜨며 기  
 러기는 목이 긴고로 잘 울며 송백은 속  
 이 단 단한고로 겨울에도 푸르다 7動物

學者도 아니고 物理學者도 아닌 공자  
 님은 이와 같이 말하였다. 아이! 그  
 령지 않습니다. 그럴다면 고기가 물  
 에 잘 뜨는 것도 닭이 있는 까닭이며  
 개구리가 잘 우는 것도 목이 긴 벌고이  
 며 배(竹)가 저 물에 푸른 것도 속이  
 단단한 탓입니까? 공자! 아이!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됩니까? 공자!  
 땅에 일을 말함이 어찌 여러 천지의  
 일을 말하느냐? 아이! 그러면 땅  
 에는 짐이 몇 호나 됩니까? 공자!  
 眼前의 일을 말함이 어찌 여러 천지의 일  
 을 말하느냐? 아이! 眼前의 일을  
 말한다면 시면 살은 몇 개나 됩니까?  
 공자! 한즉 공자님이 다시 말할 수 없게  
 되었다. 허허 웃고 제자에게 하는 말  
 이! 후생기외라. 하환래자지. 불려  
 금아리오! 라는 감탄의語句를 남  
 기시고 車에 올라 떠났다. 제군이  
 여! 후생을 輕視하지 말라. 현  
 당신보담 모른다고 冷笑하지 마르라.  
 冷笑하는 그것이 제군이 제군을 비웃  
 는 것이다. 將來는 現在보다 進步하여  
 야 한다. 후생은 전진자보다 나아야 한  
 다. 그기 어眞實하고 도물은 文化가 진

축되는 것이다. 연수하신 노장군들이  
 여! 靑年을 위하여 회생과 의로울  
 아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社會가 항  
 상진보하는의도일 것이다. 그와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自然의法則은 또  
 한 그와같이 進行되며 美事는 임의점  
 하였으니 언제나 他人을尊敬하는  
 것이 現代道義生活의 本質인 것이  
 며 참다운 社會를建設하는 데 基本  
 概念일 것이며 또한 各人의 概念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眞實한 社會를構成  
 할 것이다. 道義教育을 行하는 그자  
 가 부끄럽지 않는人間이며 東邦之  
 禮儀國을 만드는데 基本要素이며  
 富強한國家를 建設할 것이다. 피어  
 나는 비만 무궁화꽃송이여! 眞實한  
 精神에는 불어오는 惡風에도 쓸어지  
 지 않을 것이며 硬固한決心아래 人  
 間의 喜怒哀樂은 경다할 것이며 참  
 다운 社會를 만듬으로 萬古바른 歷史의  
 일페지가 위어질 것이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전진자의 過程일  
 것이다.

檀紀四二九〇年三月七日

# 생의 意慾

P 生

黃昏의 여울이 무르익었다  
 오늘 하루 해도 무던히 애려우  
 더니만 그 빛을 잃기始作하는  
 運命이 되고야말았다 그렇게 燦  
 爛하다고 翰慢하던 時節이 언제  
 었드나 하는듯이 지금 시들어감  
 을 哀惜해하고 구슬머하는樣이  
 測隱하여진다 前進과 衰殘을 거  
 듭히는 人生이 이제 悠未을 告  
 할날이 臨迫하려니 生覺할때 지  
 금 今時라도 쓸어질것만같아 못  
 견디겠다 죽기까지 難堪같이 배  
 워야한다던 先輩들의 經驗談을  
 回顧하면서 人生의 目的이 무엇  
 이었던가를 두리번거리며 지금  
 哀愁에 陷溺된 것이다.  
 아! 나는 이제 永遠히 幸福  
 하여야겠다 幸福이 싫다는者 未있  
 으라마는 그것을 찾을수있는길을  
 死守치 못하고 罪惡과 虛榮의 泥潭  
 마로 誘惑되어감을 즐겨하는것이  
 다. 聖地로 가는길은 險難하고

懺悔의 눈물과 쓰라린 狼狽이  
 도저히 征服할수없는듯이라고 聖  
 人이 吐露하였다  
 眞理는 恒常 平凡한 新話中에  
 散在하는것이다 나는 눈물, 그것  
 마저없이 이 罪惡한 世上에서  
 微細한 樂이나마 찾을수없다  
 눈물도 하나의 消息이려나 이걸  
 기 致獨한者에게는 너무나 惶悚  
 한 特接인것이다 高貴하고 慘憺  
 한 芳을방울이 面服에서 아롱새  
 여 落淚할때 아랫 윗입술은 여  
 세고 근세게 악물려지며, 음!  
 하는 長歎과 아울러 決心하는바  
 있기때문인것이다 이 逆境을참자  
 ! 그것爲해 나에게 純眞한 눈  
 물이 있지않은가?  
 줄줄이 흐르는 落淚를 맨손으  
 로 쥐여싸고는 卑屈히 사무치는  
 覺悟와 歡喜를 盟誓하고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信念을언고서  
 야 그제서 安堵의 微笑를 抿그  
 레! 머우는것이다 내 眉 눈앞  
 에 煩雜하고 繁華한 무리群들름  
 에서 이제 畢竟 오고야말 悲慘

한 末世를 좀더 明白히 알아 두  
 었더라면 早晚間의 苦痛을 왜  
 지금 不正確한 惡趣味化하여 不  
 正確한 快樂으로 轉化하는 것을  
 깨을리하지 않는 것일까 보나 / 永  
 遠한 天國이요 所謂 長久한 幸  
 福이 到來할 그날, 그기쁨을 爲  
 하여 나는 이것의 온갖 逼迫과  
 사단의 誘引을 克服하리라 그리  
 고 肉体内에 간직하였던 것을 全  
 部 消火하리라 하니 오히려 그  
 것을 사랑스런 落淚化하여 이軟  
 弱한 心情에 衝擊을 주게 하리라  
 그리고 情답고 민중적스러운 손  
 길로 그를 갈기갈기 문질러 버  
 리리라

좀더 幸福한 未日을 爲하여  
 오늘 의 快樂의 瞬間을 犧牲하  
 리라 슬픔은 슬픔대로 未練없이  
 받으리라 그것도 하늘이 나에게  
 주시는 恩惠인 것이다 그리고는  
 終末에는 幸福의 聖地를 征服하  
 고야 말리라 거기에는 아름다운  
 復讐에 満足된 快樂이 나를 반  
 겨주리라 나는 이제 참어야 하

졌는 것이다 참을수 없는 모든 것까  
 지라도 모이두 참어야만 할 그 뜻  
 을 그目的을 나는 알았기 때문이  
 다

오교야 말것이라는... 信念과  
 오교야 말것인故로...  
 一九五七年 壹月 日

(六九頁에서)

아니 할것이다 하고 하였다 그는  
 가끔가끔 講義中에 그러 한 말  
 은 教會에서 설교하는 牧師나  
 할말이나 누구든지 小說作家로  
 成功을 바라는 사람이면 반듯이  
 民衆을 사랑하여야 한다 라고 권하  
 였다 만일 이것이 小說作家에게  
 眞理라고 하면 열골과 열골을  
 對하는 사람과의 關係에 있어서  
 는 더욱 그러 할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詩

黃 昏

申 丙 均

이제는 지나가 버렸는가  
그 찬란한 웃음과

그 호화로운 年輪  
廢人이 된 자의

애달픈 追憶이여!  
찬란던 太陽도 黃昏은 있다

그것은 노을을 끌며  
休息을 爲하여

그 자태를 감추는  
再生의 黃昏이여라.

그것은 過去를  
回想하는 자세

아득한 未來는  
이미 노의 視野에서

사라지지 이미 오래다  
이제는 없어진

그의 氣를  
되풀이하여

카카미 氣를 되풀이하여!  
차이 氣를 되풀이하여!

질식할 호흡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고서도

悲運을 저주하는

그의 눈에선

눈물도 이미 말랐다.

빛나는 눈

심상한 얼굴을

비쳐주는

거울은 이미 없다

오! 세월의 흐름이

이디지도 人間을

파멸에 이끄는 것인가

끊임없이 쌓이는

年輪의 그림자를

그 아무도 못잡지 못한다

그것은 人間이 지닌

本然의 運命

그것이 바로 저주바들

運命이라면

오로지 생을

모기하련만

오! 弱한 動物이여!

저주 바들 生命이여!



# 내 뉘의 종소리 金文煌

太吉의 鐘樓에서  
울려오는 鐘소리  
아득한 옛날이 그리워라  
지나간 때는 쌓여 쌓여서  
어디로 가느냐  
가마양개 먼...  
저 빛인 하늘아  
해와 달은 돌고 철은 바뀌고  
끝없는 때의 그 칸토막  
하루사리 나는 시끄러운 오늘  
나의 짙은 삶이 무척 무겁다

소리도없이 들려오는 종소리  
끝없이 닳기는 때의 줄을 타고  
영겁을 뚫어 지날 때  
여기 작으만, 나의 가슴  
나의 뉘에 맞춰 울린다.  
울려라 울려라 영원의 종소리  
짙은 오늘도 저물어...  
하루의 이생명 흐느껴운다

(一九五七. 二. 大煌)

一. 家庭(가정)의 樂(악) 七(칠) 則(칙)  
二. 批(비)評(평)을 論(론)리려고 하지말것  
三. 批(비)評(평)말것  
四. 眞(진)正(정)한 感(감)謝(사)를 줄것  
五. 禮(례)儀(의)를 注(주)意(의)할것  
六. 禮(례)儀(의)의 方(방)面(면)으로 본 結(결)婚(혼)生(생)活(활)에 對(대)  
七. 性(성)的(적) 良(량)書(서)를 讀(독)하것



프○E○

青春로 맨스 - SK生

어느 뜻은 봄, 따스한 日曜日  
 도 저물어가는 서너時쯤 되었을까  
 ? 자문밖 綠陰사에서 서는 한창  
 青春事業이, 크라이막스에 오른  
 瞬間이었다. 鐘國이와 玉蘭이도  
 왜 빠지라는듯이 으젓하게 老松의  
 들에 자리잡고 앉아서 무엇인가  
 熱心히 싸우기도 하며 또 한바탕  
 웃어 재키기도 하기에 하도 神奇  
 하고 異常해서 영금영금 舞臺을  
 해서 틀어보자니까 이젠 最火  
 限度로 氣絶을 열다섯번 해야 할 판  
 으로 하가지기한, 로먼스를 演出  
 하고 있지 않던가 이제 그 場面  
 을 紹介하기로 한다  
 鐘 " "까불지말어 이래되두 우리  
 아버지네 대단하시단말야 明  
 洞거리애 나타나 마카오나  
 런던이나 파리, 와신톤, 뉴욕  
 로마, 全世界를 걸치고 돌아  
 다니다가도 우라아버지께서

한번만 으젓하게 씩하나 옛  
 켜하고 거침만 하시고 나타  
 나시면, 익크라고 全部逃는간  
 단말야,  
 玉 " "오라 당신아버지가 바로  
 요새 인기있는, 현대가리 산  
 호랭이였구나? 어머니!  
 鐘 " 애잇 그까진건 問題가안돼  
 저동장사 동장사 동지개꾼이  
 관 말씀이거든 애! 햄엇때?  
 玉 " 정말 핑장버저지곤하시구나,  
 우리아버지앞에 오는 사람은  
 大統領아구 副統領이구 閣에  
 誰何를 漢論하고 全部恭遜히  
 禮儀바르게 모자를 벗는단말  
 야", 옛! 램!  
 鐘 " 익크 이거야 말맛다나 眞  
 字 x x 호랭이로구나 떨린다  
 애!  
 玉 " 호! 호! 떨지는마! 過히  
 핀찮으시니까 우라아버지는  
 理髮士란말이야!  
 鐘 " 더목아지 왜생겼는지 아냐?  
 " 목아지가 없으면 대가리가  
 어개애 붙을판이니까 그럴지

鍾

아나나 男手들 이렇게 밋  
진. 빅타이 매라는 거야 그래서  
너같은 것들 虛榮에 들뜨게

파런이거든

玉

女子는 왜 생겼나?  
아저정말 따라지로나  
같이 虛榮에 달든女子 戀愛

鍾

에失戀하면 새끼오래기로  
벌게하라는거야 하며 玉蘭이  
의 목을 조른다.

玉

미쳤나봐 自動車가 뒤에서  
뺨뺨하면 왜돌아다 보는지  
아나?

鍾

죽을가봐 그렇지  
玉 千萬에말씀 뒷통수에 눈깔  
이 없으니까 돌아다본단 말

鍾

싫어냐 옛-헛  
힘에가는줄아나?  
氣車는 무슨

玉

石炭을 때고 수증기가 나  
나카 그힘에 가지! 난 大  
學生이야 왜이래?

鍾

앗따 잘난 大學生이다 목  
목탕은 眞終日石炭만때고 수

증기가 파차도 음싸할싸도  
않드라. 잠시 열세도없이

말겨든다

玉

황새가 왜 다리하나를 들  
고있는줄 아나?  
鍾 다리가 아프니까 그렇지,  
玉 아나 이발동아 돌다들면  
표꾸라지거든 鍾國이가 주  
먹으로 玉蘭이의 간드러진  
얼굴을 한참 쿡, 쥐어 박는  
다 신이난 모양이다

鍾

새가 열마리쯤 앉았는데 포  
수가 가만히 숨어서, 타! 양,  
하고 한마리쯤 맞쳤거든 몇  
마리남았지?

玉

그거야 한마리쯤 남았지  
玉 호호 / 땅소리에 全部 날  
라갔드라 이말씀이야 그래서  
죽은놈 한놈뿐이거든. 미안소  
리하며 精熱에 넘친, 왕크를  
던져준다

鍾

애 玉蘭아! 산비탈 陽地  
바른쪽에 한쌍의 노루가 단

玉

바른쪽에 한쌍의 노루가 단

鍾

바른쪽에 한쌍의 노루가 단

玉

바른쪽에 한쌍의 노루가 단

玉 " 꿈을 꾸고 있었다란다. 지긋  
 은 사냥꾼하나이. 타당하고  
 한놈을 쫓았지? 피를 만하  
 고 한놈이 붙어쳐어 몇마리  
 남았을까?  
 玉 " 그야 한놈이지. 한놈은 逃는  
 갔으니까.  
 鍾 " 아나란다. 두놈이 全部 남  
 았드란다. 남은놈은 커며어리  
 었단말이야.  
 玉 " 오! 라 사랑에겨워 떨어져  
 지가 싫었다말이지? 못쓸놈  
 에 사랑꾼 같으니. 하여 저  
 음이 同情를 表하면서 얼얼  
 을 부린다.  
 玉 " 촛불은, 흑하고 불면 어떻  
 게될까?  
 鍾 " 흑하고 꺼지지. 별그래.  
 玉 " 그러면, 흑하고 들어마시면  
 도루저지겠네? 하/호/하/호/  
 ...  
 鍾 " 오첫봐라. 달걀을 따듯하게  
 수무하루를 두면 뭐가되지?  
 玉 " 그거야 勿論. 어여쁜병아리  
 가 되지요.

鍾 " 그러면 그놈에 병아리를  
 스프하루만시키면 도루 달걀  
 이 되겠군. 호호호... 好氣  
 心이찬 미소였다.  
 玉 " 내 모범靑年하나 紹介할까?  
 鍾 " 솔깃해서. 정말? 하면서 몇  
 적은듯이, 고만되. 한다.  
 玉 " 담배는 勿論 술은 범새도  
 못말고 말도 勿論 없고 女  
 子에게는 近處에도 가지않는  
 洞埋의 總人氣集中인 靑年이  
 저든.  
 玉 " 어머니 어찌면 몇살이나  
 되셨는데?  
 鍾 " 연세는 靑年들이 滿四才란  
 말야. 하/하/  
 玉 " 대단하시군.  
 鍾 " 하루는 마루에서 못을박으  
 시려고 아버지가 부루사며  
 뒀집에가서, 장도리. 좀 빌려  
 온. 하하지않겠어? 그래서  
 뒀집명감한테 가서 그랬더니  
 장도리가 달어서안된다. 이런단  
 말야.  
 玉 " 어머니. 至毒하시군.

鍾

玉

그래서 기가 막혀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이거야 단이야,  
 저할수 없군 선반에 있는 우리  
 장들이 가지고 온, 하시지 않겠  
 소 우리 장들이가 달는다고  
 남에게서 빌려오랬더라니까  
 玉 男子는 그대야 이다음에  
 가정생활을 착실하게 하요 하  
 며 婦孺階에까지 들어갔다  
 그다음은 참아 보지도 듣지  
 도 못할 애기가 오고갔다 누  
 가 있었으라, 해는 西山으로  
 기운지 이미 오래다 이들은  
 그대도 잘잘을 모른다  
 나는 슬그머니 화가 터질까  
 지 치밀어올라 들을집어 던  
 지고 바빠 도망을 쳤다  
 그들은 必是 아름답다 꿈을  
 꾸었을 것이 빼어난다 青春  
 의 가슴에 넘치는 ...

(어느 對話속에서)

左 右 銘

이렇게 하려면  
 어디서나  
 歡迎반는다

내가 서너달 되었을 때에 우  
 리집에서는 五十錢을 주고 예뻐  
 1 짜리 나라는 강아지를 사다  
 길렀다 그것은 나와 하나뿐인  
 즐거운 친구였다 毎日 四時半  
 썸 되면 門앞에 나와서 나  
 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내 팔  
 소리가 들리든지 내가 보이  
 든지하면 달음박질 해와서  
 경청하고 뛰어 오르면서 나  
 를 맞아주었다 이렇게 저나  
 기를 다섯해동안이나 하였다  
 1 짜리 나라는 心理學한페이지를  
 읽은 일이 없지만 本能的으로 참  
 된 友道를 잘 알고 그것을 奧行  
 하였다 1 곧 남을 本位로한 交  
 際의 두달동안에 얻은바 親舊數  
 가 自己를 本位로한 交際의 二  
 年동안 얻은 親舊數보다 더 많  
 을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우  
 리가 너머도 잘 아는 것과 같이



# 슬어진 處女 의 꿈

李 天 永

고요히 흐르는 沈黙속에서  
 나날의 절어온 자욱자욱 새겨진  
 자취를 더듬어보나 알지 못할  
 음만이 이내마음을 애태우고  
 물과 파로움이 荒漠한 그날의  
 追憶을 싣고서 끝없이 어디메로  
 인자 떠나가는 靉靄한 이내몸이  
 되고 말았구나 그날만을 爲해서  
 數없이 헤아렸든 열 손가락이  
 바르르 떨어져야 할 그날일줄이라  
 꿈엔들 生覺했으랴 피기도 前에  
 저야할 運命의 꽃이라면 차라리  
 落葉던진 永遠의 安穩處나 찾을  
 짓을 不斷히 行해전 虛榮하  
 나였는가? 그렇지만 그렇게 解  
 析하기란 지난날이 너무나도 哀  
 惜하고 스스로 自滅의 軌를 引算  
 한것이 되고마나 險惡한 이세  
 의 數北者의 苦杯를 맛본것도  
 여울할것인데 善意로 解析하면  
 스스로의 慰宓이나마 하여볼셈으  
 로 이렇게 生覺도해본다 아직도

사라지려 않은 채 餘音이 귀에  
 쟁쟁한 人間의 未完成이란 말이  
 야마도 이것일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한낱 敗北者의 근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決코 正義가 그  
 변수는 없는 것이다 가지가치의  
 쓰라린 現實속에서도 보람있는  
 삶을 찾고저 不遇한 環境과 사  
 우고 천디어왔건만 目的하는바를  
 다하지 못하고 이날을 그대로 떠  
 나게 되니 마음기 그를 許諾치만  
 볼뿐더러 끝내 誠意를 배워서  
 가르쳐 주신 先生님들의 다사로운  
 사랑과 恩惠 또 物心兩面으로  
 자라는 後輩를 늘 激勵해주시고  
 돌보아 주신 先輩諸位에게도 自身  
 의 無能함을 告白하고 달려들여  
 늘고도 싶은 心積이기도 하다  
 理想과 希望에 부무른 가슴을  
 안고 아득한 先生님들의 품안에  
 안겨 꿈을 간직했던 高校時節도  
 있었으나 理想을 實現하지 못하고  
 기세 世波로 뛰어들고 말았다 그러  
 나 世波는 沃코 無心치않어  
 世波에서 서달린 조각배인양 方

向을 잃고 허배이는 나에게 燈  
 臺을 찾게 하고 砂漠의 木마른  
 廠商이 「오아시스」를 찾은듯 震  
 心으로 그(속기)를 배웠고 그  
 (運記)를 말았다 이 둘의 사이는 날  
 이 갈수록 가까워졌고 어느덧 그  
 (運記)는 배움의 辨相이 아니었고  
 곧 나의 것이라고 認識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나는 그(속기)를 亂織  
 하기가 지의 苦悔로웠든 지난날을  
 을면서 그려보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것이 나의 生魂의 현 夢의 도  
 움이 되가는 커녕 完全한 나의 것  
 이 되고 말았든들 이도록 슬피 하  
 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것이 그렇게 感味로웠든 것도 아  
 니었던 만 正병 의롭고 가난했든  
 나에게 다사로운 벗이기에 정말  
 베풀게 후福했든 一年이기도 하였  
 다 北風 寒雪 모진 겨울도 지나  
 봄이 비주비주 움트는 새싹과 함  
 계 깃들리라는 꿈도 渺然한 채  
 봄을 맞이하게 되고보니 가슴을 만  
 타깝게 애래우든 꿈도 사들여 지  
 고 말았다 永遠히 찾을수 없는 그

날의 痕跡이기로 다시 들추어보  
 고 生覺을 하여봐도 끝없이 사라  
 만지고 꿈과 함께 사라지는 이날  
 의 悲哀가 볼면서 떠나가는 居  
 處없는 나그네외도 갈다  
 平和롭던 마음의 東山에서 希  
 望에 버차 지나온 數없는 날들  
 이 眞情 아름다웠든 헛된 날들  
 을 그대로 묻어버리고 소리없이  
 흐느껴우는 그날이 될 줄이야 노닐  
 다고 해서 悲觀할 것도 없다 오직  
 파음을 가다듬고 이제 무너진 탑  
 을 다시 쌓아올리기 위하여 시들  
 었든 꿈을 되살리기 위하여 寸근  
 한 마음으로 꾸준한 努力으로서  
 허구한 苦生 아픔과 눈물의 뒤  
 에올 光明의 새날을 向해서 힘차  
 게 나아가련다 그래서 情답게 내  
 려주는 햇빛에 음르고 싹들은  
 이 봄을 祝福하는 同時에 새希望을 約束  
 한다 끝으로 直接指辭하여 주신 先  
 生님들과 先輩諸兄 그리고 同期  
 여러분들의 끝임없는 指導鞭撻이  
 있으시기를 懇曲히 什錦을 여쭙  
 면서 끝 (丁酉 三月)

# 플치의 일년

K. T. S.

플치 플치하나 사랑이 부족해  
서 플치가 아니라 하도 돈 돈 해  
서 기여코는 명망스러운 플치의  
딱지가 붙은 모양이다  
일년전을 기여올라서 입학초의  
야유회 회비를 시초로 매월의  
회비 확보대 조외대 주하금 심  
지어는 막걸리값까지 독촉하는  
판이나 확실하 미움 받는 플치  
임에는 들림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 교실내에서 플치가 아  
니라 학교 당국에까지 플치로  
통칭되고마라 내가 속기생활에  
종지부를 찍기까지는 플치로 기  
역에 남을지이나 감사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까지 플치의  
속기학교 일년간에 그나마 재대후  
느저진 대학을 포기했고 카모는  
저지만 두군대의 영업을 목살했  
으나 집에서 일년간 팔세란  
플치도 여간이 아니었다  
플치의 잔소리가 이렇게 나오

다가는 플치아픈 시비가 플치의  
없겠지만 또한번 플치해가겠다  
일년간 플치가 플치스런 재두  
장판직을 맞기 때문에 학우들이  
플치아픈 플치에 플치를 내들렸  
음은 비안히 여기나 그간의 회  
비기다 여러가지에 성의껏 협력  
해주신 것에 플치가 감사하며  
수시로 국상년과 과장님체 플  
치스럽게 때를 써서 학우들의  
원하던 결과를 맺게되었음은 허  
관한 일이라 학교 당국에 감사하  
다  
종々 선생님 덕에서 야밤중까  
지 술다령으로 괴롭히든 일은  
플치중에도 대표적인 플치의 사  
건들이라, 플치의 일단"을 대신  
해서 플치가 저스려운 말을 한  
다

플치서 모든열심을 가지면 외롭하다  
三 四學年 때의 벗이야말로 眞實한 벗이다  
三 홀륭한 아내는 男使에게 服從하는 것같이 하면  
서 其美 服從시키고 있다



詩

鍾 소 리

적막에서 잠들어  
헤아릴수 없는 마음

흰구름 하늘선  
부르른 낙원에 피는 낙엽갈아

홀려나리는 석양아래  
고독으로 고독으로 씨뿌리며  
바람따라 흘렀다.

오랜 풍상에 시달려  
쇠막 해진대로 다정한 음향은

면 | 행운같은 것을 띄오보는  
꿈인양  
이슬맺힌 여인의 볼을 스쳐

~ 73 ~

차 保 和

이른 새벽  
눈나린 하늘가로 하늘가로  
넘쳐만 갔다.

넓다란 廣場위에  
아슴라한 痕跡을 감돌아서  
막상 살아전 돌아올길  
멜로디여!

輪廻하는 志向  
피울길 없는 花環에

남모르게 혼자서 피어나는 그리  
움으로  
헐리워진 옛 城 마루를 달릴때  
마다  
이플찌기 저플찌기 가까운 숲으  
로 넘나들었다.

卒業生名單

姓名	年令	住	所	遵路處	本籍
姜萬洙	23	東大門區昌信洞六三八	(上全)	京畿	
崔衡重	26	東大門區清涼里洞一八一斗三 <small>忠南舒川郡</small>	鍾路區三清洞九二	咸南	
金一謙	26	忠南舒川郡 韓山面芝峴里二〇五	(上全)	忠南	
朴相國	22	永登浦區黑石洞三九斗一	(上全)	忠南	
金永浩	23	龍山區新契洞三五	速記課	忠南	
金明壽	28	麻浦區阿峴洞三八斗三九	(上全)	忠南	
崔竟夏	23	西大門區弘恩洞三六斗二六	速記課	黃海	
金容煥	29	鍾路區明倫洞一三七斗一	保社部年金課	京畿	
崔錫模	22	江原道三陟郡 北坪邑歸德里十六	(上全)	江原	
金泰宣	28	鍾路區考務洞二二八	速記課	忠南	
金俊永	23	西大門區北阿峴洞山三	(上全)	忠南	
金大煌	21	麻浦區大興洞四〇	( )	咸南	
朴保和	22	城東區上住十里洞三六一	速記課	忠南	
白石基	22	麻浦區新孔德洞一〇	서울中央電信局	忠南	

陸鍾采	宋英培	李柱泰	黃善明	洪貞憲	洪鑑愛	李康恒	李天永	陸鍾晟	林文基	丁明淑	申丙均	申根植	宋鍾學	徐廷仁	徐謙運	徐允錫
21	22	24	24	21	23	22	22	24	24	23	23	22	25	21	22	25
西大門區萬里洞二街	鍾路區明倫洞四街四	東大門區躑十里一七五	鍾路區花洞二七	東大門區昌信洞三九의	中區乙支路二街一四八	龍山區漢江路三街一	西大門區北阿峴洞三四七의六	龍山區厚岩洞四十八의二二	京畿道金浦郡陽東面新亭里 396	東大門區昌信洞六三八의四三	城東區杏堂洞二八四	鍾路區明倫洞一街一五	東大門區昌信洞山六	龍山區青坡洞二街一〇〇	城北區安岩洞二〇三	林浦區阿峴洞四九八
( " )	( " )	( " )	( " )	( " )	( " )	( " )	( " )	( " )	仁荷工大	( " )	東國大學校	湖南신문서울分室 서울城東區 新堂洞一四四의一	( " )	( " )	( " )	( " )
			京畿				京畿	慶北	京畿		서울	全南	京畿	서울	慶北	京畿

# 教職員一覽

職位	姓名	本籍	現住所
校長	崔珽宇	서울	鍾路區惠化洞二七의六
副校長	徐商拔	京畿	昌成洞一七
教監	金震熙	平北	龍山區元曉路一街二一の二
速記學 教授	金鎮基	서울	鍾路區昌成洞一七
張蕙根			
鄭源道			勸農洞一九〇
經濟學 講師	金昇鎮	忠南	龍山區厚岩洞四二
法律 講師	徐一旻	慶北	鍾路區來園洞二八三의一六
庶務	韓鐘瑛	平北	清雲洞七

# 同窓會名譽會員

~77~

姓 名	現 職	備 考	本 籍
金 用 雨	二代校長		忠 南
崔 珽 宇	國會事務總長(現校長)		京 畿
徐 商 俊	國會議事局長(副校長)		平 北
金 震 熙	國會速記課長(校 監)		忠 南
張 基 泰		逸波式速記創業者	忠 南
金 鎮 基	國會速記士	逸波式速記養成所 一期卒業生	江 原
張 惠 根			忠 南
吳 潤 玉	韓國銀行		忠 南
李 圭 洪	國會速記士		慶 北
洪 準 杓	泗川에서養成所設立		江 原

姓名	現職	備考	本籍
鄭源道	國會速記士 (教授)	遼波式速記養成所 一期卒業生	서울
柳浩龍	韓國銀行速記士	右校二期卒業生 (前此會談韓國代表團員)	서울
韓奎默	國會速記士	二期卒業生	忠南
李鍾鎬	時事通信記者		서울
尹載秀	國會速記士		京畿
盧元鎬			平南
楊佑鎮		右校第三期卒業	서울
姜炫泰	國際通信記者		서울
黃善默	教員		全北
李海祥	朝鮮日報記者		忠南
韓鍾瑛	庶務主任		平北

※ 以外에 會員이 有하오나 所在地不詳으로 記入치 못함을 遺憾으로 여기며 後記하기로 함







崔慶重	國會速記士	朴勝世	서울法大生
李鍾均	國民大學生	李良淳	國會速記生
金明洙	成大生	姜允煥	司法新聞社
金明純	國會速記士	黃圭璧	國會速記士
朴長淳	國學大學生	韓弘男	國會速記士
鄭禮會	軍人	徐平吉	江原道議會速記士
裴炳兩	全北道議會速記士		
梁基興	中央大生		

# 本校沿革

本校創設以前の學園形態를 먼저紹介하면 檀紀四二七七年에 逸波張基泰先住의 創案으로 우리말速記法이發表되고 四二七九年九月에 逸波式速記士養成所를開設하여 四二八一年三月 第一期生 九名을 在會에 進出시키게되었고 四二八〇年十一月에 第二期生을 養成하여 四二八一年十一月에 十三名을 在會에 進出시키게되었고 四二八二年九月 金鎭基鄭源道 兩先住의 指導로 第三期生을 養成中 四二八三年六月 六二五勳亂으로 말미암아 中斷하게되었던것이다 其後 本校는 四二八四年十二月一日 文敎部長官의 認可를 얻어 教育法에 依據한 高等技術學校로 開校式을 舉行하였던것이다 第一回生은 四二八四年十一月中旬 應募者 一三七名中 九五名의 新入生을 選拔하였으며 男女共學制를 採擇하여 尙便 敎舍關係로 不得已 二部副敎授를 實施하였던것이다 其後 四二

八五年三月一日에 二部補教授를 撤廢하였고 四二八五年十一月에 三七  
 名의 卒業生을 내어 其中 優秀한 速記士는 國會 韓國銀行 通信社  
 警察局等에 進出시키었다  
 第二回生은 他學校와 始學期를 맞추어 三月中旬에 應募者 一五三  
 名中에서 六二名을 選拔하여 校業中 避難地로부터 서울로 遷都하게  
 되자 地域關係와 學生自身の 遷都치못할 不得已한 事情等으로 많은  
 落伍者를 보게 되었으며 四二八七年三月에 二十一名의 少數人員을  
 卒業시켰던 것이다 또한 優秀한 速記士는 國會 公報處 國防部 등에서  
 活躍하게 되었다 繼續하여  
 第三期生은 志願者 三九六名中 七十二名이 入學하여 二十三名이  
 卒業하였던 것이다  
 第四期生은 近五百名中 七五名이 入學하여 三十名이 卒業하고 限  
 많고 苦 많았던  
 第五期生은 三對一이라든 對數를 물리치고 七二名이 入學하여 三  
 十一名이 卒業하여 速記部面에 많은 活躍相을 나타냈으며 名譽의  
 卒業狀을 들고 校門을 나섰던 것이다

# 同窓會會則

第一條 本會는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同窓會(以下本會라稱함)라稱함.  
第二條 本會의 事務室은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以下母校라稱함)內에 둔다.  
第三條 本會는 會員相互間의 親睦과 母校의 向上과 速記學發展에 貢獻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四條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과 名譽會員으로 區分하고 各會員의 資格과 義務權利는 다음과 같다.  
一 項 資格  
正會員은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所定의 卒業者로서 加入한 者에 限한다.  
二 項 義務  
名譽會員은 母校現職員 및 逸波式速記能力者로 한다.

三 項 權利  
一 正會員은 會則을 遵守하며 總會 및 任員會의 諸般決議된 事項을 履行하고 所定의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二 名譽會員은 本會를 協助 鞭撻하며 總會에 參席한다.

四 項 權利  
一 正會員은 任員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保有하며 諸般事項의 發議權과 決議權을 가진다.  
二 名譽會員은 總會에서의 發言權과 發議權을 가진다.

第五條 本會는 會長 副會長 總務書記各一名외 選定하여 任員會를 構成하고 任員의 任期는 一年으로 한다. 但 補選된 任員은 前任員의 殘余任期로 한다.  
任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第六條 會長 本會를 代表하며 任員을 指揮 監督한다.  
副會長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有故時 會長을 代理한다.

第七條 總務 1. 本會의 財政 涉外 連絡 其他 諸般 事務를 管理한다  
 2. 書記 3. 總務를 補佐하며 總務有故時 總務를 代理한다  
 4. 任員會의 諸般 討議 事項은 任員 過半數 以上의 決議로서 이를 處理한다  
 第八條 本會는 總會에서 推選하는 五人 以內의 顧問을 둘 수 있다  
 第九條 本會의 財政은 正會員의 會費 및 名譽會員의 贊助金으로 서 充當한다  
 第十條 本會의 會集은 다음과 같다  
 1. 定期總會 2. 每年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3. 臨時總會 4. 任員會의 決議 또는 正會員 五分之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十一條 總會는 召集日 十日前에 新聞이나 래디오 其他 通牒을 通하여 會長이 公  
 告하여야 한다  
 總會의 成員은 正會員의 出席員數로 하고 諸般 決議는 正會員 在席 過半  
 數로 서 이를 行한다 但 會長은 必要에 依하여 從多數로서 決議를 宣布할 수 있다  
 第十二條 本會則 改正은 總會에서 行하며 正會員 在籍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서 이를 改正한다

第十四條 總會에서 決議된 諸般 事項은 宣布 即時로 効力を 發生한다  
 第十五條 本會의 正會員이 故意로서 本會의 名譽를 汚損케 하거나 本會所定 規則  
 을 遵守치 않을 때는 總會의 決議에 依하여 譴責 또는 除名 處分할 수 있다

附 則

一 本會則에 規定되지 않는 事項은 總會의 決議로서 이를 處理한다  
 二 創立 總會에 出席한 者는 本會의 正會員(名譽會員 除外)에 加入한 것으로 認定한다  
 三 本會任員會는 選拔 或 速記 學會의 會則을 作成 議決하고 따로 臨時任員을 選定  
 하여 運營하되 次期 定期 總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四 本會會長은 此 學會의 會則 議決 및 臨時任員이 選定되는 即時로 會則 油印 및 臨  
 時任員名單을 各 正會員 名譽會員에게 通知 配付하여야 한다

外 二 十

# 編輯後記

苦難에 一年 限하고 苦難하던 一年

決코 一年이란 歲月이 긴것은 아니었다. 千古의 寂光은 밤

하늘에 그렇게도 맑은대 일을 마치고도 우리의 마음은 釋然치

못하다 速記의 門을 두드리며 들어올때 느끼던 感想 卒業과함

게 느끼지는 感想 各者다르리라 永言配命 自求多福 이관 말

이 있듯이 自己自身 꾸준히 싸우는者만이 앞으로의 希望을 갖

으리라.

編輯途中 느끼는 苦衷 그러나 여러분의 벗이 되는 逸波學報

를爲해 달게 받았다 이번에는 自身の 滿足을 어느程度까지하냐

卒業을 맞으며 學友諸兄들의 聲援이리라

정녕 깨어지지않으면 不變 이 時間에 이 적은 冊子가 學兄들

의 眞實한 벗이되고 興味를 도파어준다면 그로써 滿足한 微笑

를지으며 苦難의 時間을 달게 받겠다

學友들의 個人評은 編輯委員들이 合作하여 썼다는것을 말하여

두며 大概는 別名을 紹介했다 많이웃어주기를 바란다

이러은 冊子를 爲해서 深甚한 協助과 아울러 끝까지 돌보아

주신 스승님들께 感謝를 올리며 內容은 풍부하지 못하나

끝까지 돌보아주신데 謝해서 再三 感謝를 드리며 學兄들의 成

功과 健聞을 빌며 苦難의 記錄에 代하고저하는 바이다

編輯委員

黃善明 金永浩 朴相國  
朴保和 申根植 以上

